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도 주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70호 2012년 2월 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강한 남성 상징' 슈퍼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크리스천 언론 "슈퍼볼 종교적 함수 및 하나님 알리는 잔치로 변형" 보도

2월 5일 1초당 13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에도 미식축구 결승전 제 46회 슈퍼볼(Super Bowl)에 대한 미국 광고주들의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미국 소비 심리회복과 경기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로이터에 따르면 오는 2월 5일 미국 동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전통의 라이벌 뉴욕 자이언츠와 보스턴 지역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 간의 격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슈퍼볼 중계의 30초짜리 광고는 약 350만 달러에 달한다.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광고단가 300만 달러보다도 상당 폭 상승한 금액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것이 미국 현지 광고업계의 반응이다. 버드와이저, 코카콜라, 펄스, 폭스바겐, GM, 현대차, 도요타 등 대기업들

은 줄줄이 지갑을 열고 슈퍼볼 광고를 확보했다. 올해 슈퍼볼 중계사 NBC는 광고 가격을 인상하는 '배짱' 장사에도 지난해 추수감사절까지 70개의 슈퍼볼 광고를 판매했다. 경기 부진과 높은 가격에도 여전히 슈퍼볼을 찾는 광고주들은 줄지어 있다는 뜻이다.

준결승에서 아쉽게도 탈락했지만 덴버 브롱코스의 쿼터백, 팀 티보(Tim Tebow)가 슈퍼볼에 진출했다면 천문학적인 광고비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떠한 슈퍼볼 광고보다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미식축구(43%)다. 2위 야구(17%)의 두 배 이상 인기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미식축구 양대 리그인 아메리칸 콘퍼런스와 내셔널 콘퍼런스의 챔피언결전인 슈퍼볼이 열린 미국은 영광의 도가니에 빠진다.

특히 이번 슈퍼볼은 4년 전,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의 리턴 매치로, 벌써부터 티켓은 이미 매진돼 정상 가격에 구하기 어렵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야 한다. 지난달 중순에 재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형성된 가격은 2,194-29만4천 달러로 최소 3배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경기장 밖에서 선 채로 스크린을 보는 티켓도 344-7백 달러로 두세 배 올랐다. 여기에 재판매 사이트에 지불하는 수수료 15%와 세금 등을 내면 티켓 가격은 더 올라간다. 수백 달러의 주차비는 별도다.

시청률 조사기구 닐슨미디어가 추정하는 미국 TV 보유 가구는 1억 1490만호. 가구당 TV 1대만을 가정할 수 있다. 지난해 슈퍼볼을 지켜본 시청자는 1억 명을 넘었다. 미국의 전 가구가 슈퍼볼을 시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 시청률을 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고 경기하는 팀 티보 선수

면 슈퍼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역대 미국 프로야구 챔피언 결정전인 월드시리즈의 최고 시청률은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맞붙은 15.8%(2540만 명 시청)다. 그러나 미식축구는 정규 시즌 '평균 시청률'이 15% 안팎이다. 슈퍼볼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인디애나폴리스

스 폴츠와 뉴올리언스 세인트가 맞붙은 슈퍼볼 시청률은 45%, 시청자 수는 1억650만 명이었던.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이처럼 미식축구에 열광하는가? 이유는 미국 사회에서 바로 '남성성'을 대표하는 정체성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단연코 야구였다. 특히 야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남성적 유대 관계를 상징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을 던지고 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친밀한 부자 관계를 상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미국 남성들은 이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식축구는 급격히 성장한 반면 야구의 인기는 서서히 줄었다. 200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프로미식축구(NFL)를 즐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4%일 정도로, NFL 중계가 있는 날이면 TV앞에는 남자들이 진을 치고 앉을 정도이다.

(2면으로 계속)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한국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시무)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말씀의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는 세미나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 자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히 호텔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 한국현지등록: 50불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이메일:sunny@kapcq.org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이메일: presssj@hanmail.net
한국등록: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 (02)490-7000, FAX. (02)436-5770
- 항공권/관광 문의: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Senior 1,160불)-아시아나항공
LA 서울 왕복 항공료: 1,220불(Senior 1,130불)-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뉴욕출발)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3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는가?



7면

특별기고
최낙일 목사(복음문서선교회)



8면

창조과학
최우성 박사(창조과학선교회)



15면

인터뷰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동사)

나광삼목사 초청 심령부흥사경회및 제직세미나



강사: 나 광 삼 목사

- Joseph's Vision 21 대표회장
-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 KWMC 대표회장
- 엘리콧시티장로교회담임 (구,큰무리교회)

- 일시: 2012년 2월 10일 - 12일
- 장소: 워싱턴온마을장로교회 (담임,서정환목사)
- 주소: 12851 Knight Arch Rd., Fairfax, VA 22030

TEL. (703)830-3903

* 로덤나무아래선교회

나광삼목사의 (주일,수요일 새벽) 설교말씀(CD)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240)381.8969 / (240)426.2856 (담당)김경옥 권사



시론

입춘대길, 건양다경



송상헌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제는 조금은 어색해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멋진 필체의 붓글씨로 써서 대문에 붙여 놓으셨던 한자로 쓰인 글들을 기억합니다. 서울에도 한옥이 여전히 많았던 시절에는 봄이 오는 길에 집집마다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두 문구를 대문에 보기 좋게 붙여 놓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옥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양옥이 들어서고, 대문은 철문으로 대체되면서 이런 문구들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문에 붙여 놓은 거주장소 위 보이는 종이가 없으니 깨끗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문구는 너무나 좋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이란 "입춘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양다경(建陽多慶)이란 봄의 따스한 기운이 감돈다 경사로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는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웃들끼리 서로를 향해 축복을 빌어주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열방의 구석구석에 이 사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원해봅니다.

대망의 새해 2012년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벌써 한 달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의 경제파탄으로 인해 유럽공동체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불의한 독재 정권들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 피의 복수를 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후지산(富士山)이 폭발할 것이라는 소식 앞에 전국이 비상사태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하늘에 14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며 우주 강대국으로 발돋움 하려고 하지만 인권탄압, 소수민족들의 피의 저항, 고도성장 속에 숨어있는 거품이 빠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Pop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높은 등록금과 실업률로 인해 정작 한국의 젊은이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품위 없는 행동으로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경제대국인 미국도 경제한파 앞에서 거대한 뚝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며칠 앞두고 가슴 설레는 여인의 삶에도 좋은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웃음만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서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회복 중에 있는 병약한 몸에도 율혜의 입춘은 더 따뜻하기를 기대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봄의 따뜻한 기운에 녹듯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한 풀 꺾여서 가정마다, 삶의 현장에 봄기운으로 새로운 소망이 싹트는 것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이 주를 알아가는 지식이 한층 넓고 깊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기도와 사랑으로 뿌린 사역자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풍년을 맞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길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소원의 향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빌어주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냥 길(吉)한 것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입춘대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건양다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봄기운을 느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요3:16) 어떤 광고보다 이목집중

크리스천 언론 “슈퍼볼 종교적 함수 및 하나님 알리는 잔치로 변형” 보도

(1면에서 계속)
미국 가정에 TV가 자리 잡게 된 시기도 1970년대부터이다.

미식축구는 짧은 시간에 화끈한 모습을 빠른 단계로 보여줄 수 있어 TV 중계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지루한 9회까지의 야구 경기보다는 브라운관 위에서 건장한 육체가 과격하게 부딪히는 모습은 야구보다 훨씬 극적으로 '남성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였다. 야구는 날씨가 나쁜 경기기를 미루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지만, 미식축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선수들은 빗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진흙탕에서도 뒹굴었다. 이렇게 미식축구는 자연스럽게 남성상의 상징이 돼버린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개척시대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육체노동에 남성상의 의미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이들이 도시의 생산 시설에 투입되면서 남성의 정체성은 위기에 직면했다. 바로 야구와 미식축구는 그리고 프로레슬링 같은 운동경기는 잃어가는 남성상을 확인시키는 수단이었다. 남성상이 가장 위태로울 때 '남성적 스포츠'

를 통해 창조주의 신화를 극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미국 자신의 신화, 즉 영토의 폭력적 침공과 점유의 과정을 재연한다”(From Season To Season: Sports as American Religion).

다시 말해서, 미식축구에 내재된

던 CBS는 보수성향의 기독교단체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에 광고시간을 팔아 슈퍼볼 사상 첫 '정치광고'를 허용했다.

이 단체의 광고에는 미 대학풋볼 리그의 스타인 플로리다 대 쿼터백 팀 티보와 그의 어머니가 23년 전

티보는 미국 대학 풋볼에서 불세출의 '듀얼 쿼터백'(잘 던지고 잘 달리는 쿼터백)이라는 평을 받고 현재의 덴버 브롱코스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대학 2학년 때인 지난 2007년 미 대학 풋볼 최고의 영예인 하이즈만 트로피를 받은 티보우는 독특한 러닝 스타일과 외형으로 '슈퍼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팀의 공격을 이끌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그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사'다. 그가 평생 필리핀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부모 아래 자란 선교여행을 통해 필리핀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아니다. 그는 지역 감옥을 자주 방문해 죄수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주민들, 장애아동들을 돕는 자선활동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선교적 열심과 선행들은 동료들과 코치들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를 비롯한 스포츠 매체는 물론, 일반 미디어들도 앞다투어 보도한 바 있다. 티보와 그의



인터넷 티켓 최고 29만4천 달러, 30초짜리 광고 약350만 달러 미식축구 인기비결은 '필연적 과격성'...개척시대 침략정신과 연관

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상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허구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다. 남자답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식축구 역사가인 블리아드(M Bliard)는 미식축구의 인기 비결을 '필연적 과격성'(necessary roughness)이라고 정곡을 찌른다. 다른 스포츠에서 과격함이나 폭력은 경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쉽지만 미식축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FL 팬들은 과격한 경기일수록 '멋진 게임'이었다고 열광하며 환호한다.

따라서 미식축구의 종교적 함의를 추적해 온 조셉 프라이스(Joseph Price)는 미식축구의 폭력성을 개척 시대의 침략 행위와 연관지어 분석한다:

“이 경기의 목적은 영토의 점령이다. 팀은 외지인의 땅을 침공한 후 그 곳을 끝까지 가로지르는 것으로 점령을 완수한다. ...미국인은 이 경

폭력성과 긴장은 '개척'시대에 벌어진 폭력적 침략과 정복의 재현으로, 미식축구 경기를 통해 미국인은 '대리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에게는 슈퍼볼 경기를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돼버린다. 1억650만 명이나 되는 시청자들은 지구촌 단일중계로서는 최대의 황금알을 낳는 광고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슈퍼볼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항상 화제가 된다.

실제로 제44회 슈퍼볼의 중계방송 광고에 남성동성애자 단체가 슈퍼볼에 광고하겠다고 나섰다. 남성동성애자 사이의 만남을 추천하는 웹사이트인 맨크런치닷컴(ManCrunch.com)은 당시 슈퍼볼 주관 방송사인 CBS에 30초짜리 광고 구매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CBS 측이 모든 광고시간이 팔렸다고 이를 거부해 동 사이트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2007년 경기체제로 인한 슈퍼볼 광고시장 위축으로 고전하

합병중에도 낙태하지 않고 티보를 날기로 했던 결정을 회고하면서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이 담겼다.

많은 언론이나 복음주의자들은 팀 티보의 탈락에 아쉬움을 호소한다. 다시 말해서 덴버 브롱코스가 슈퍼볼에 진출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팀 티보우라는 불세출의 쿼터백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 남성상의 상징이자 과격한 폭력과 거친 미식축구에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부모들, 그리고 주변 기독교인들은 그의 이 같은 태도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지난 해 2008년 전미 대학 풋볼 결승전에서 그가 눈 밑에 표시하고 나왔던 성경구절 요한복음 3:16(John 3:16)은 유명 검색사이트인 구글(Google)을 통해 총 9,400만 건의 검색 횟수를 기록할 만큼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행보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봄학기: 2012년 2월 13일~5월 25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출판감사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준비한 설교집 '사랑의 하나님' 출판기념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에 계시는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목사를 비롯한 52명 목사님들의 주옥같은 설교집이 나오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일 시 : 2012년 2월 5일(주일) 오후 5시
- ◇ 장 소 : 풍성한교회 (213-503-3355)
29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 * 설 교 : 석태운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 * 후 원 : 새생명비전교회
- * 예배후 저녁식사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213-422-9191

남가주한인목사회

44대 회장 박효우목사
출판준비위원장 정요한목사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는가?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대형교회 담임목회자 7명이 모인 '디 엘레phant 모임' 보도

지난 달 25일, 미국 대형교회 중 7명의 저명한 담임 목회자들이 일리노이 오로라 하베스트 스튜디오에 모였다.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와 마크 드리스콜 목사 주도로 이날 하루 종일 7명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과 목회 방침 그리고 설교 스타일 등을 나누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한 목회전략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기획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였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목회자 7명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됐는가를 간증을 보도했다(The Elephant Room: How 7 Pastors Came to Know Jesus).



1. Crawford Loritts(조지아, Fellowship Bible Church)

내가 13세 중반에 접어들 무렵 누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됐다. 모태 신앙이었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번도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를 누나는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된 교회로 인도했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 주일 예배시간에 나는 강단 앞에까지 나갔고 목사님이 "아들아 너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자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고 대답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다.

2. Steven Furtick(샬롯, Elevation Church 개척 목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사셨다. 16살 때 나는 침례교 부흥회에 어머니에 의해서 끌려가게 됐다. 바로 거기서 나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됐다. 결국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오늘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내가 구원받았던 시절 즉 16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16세 이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Wayne Cordeiro(호놀룰루, New Hope Christian Fellowship 개척 목사)

나는 크리스천들이 모두 이상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크리스천들과는 접촉을 멀리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게 됐고 음악을 하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통해 역사하셨다. 우연히 크리스천 밴드의

복음 송가를 접하게 됐고, 음악을 듣고 나누면서 크리스천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맘을 열었고 지금까지 목회현장에서 음악과 예술의 도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4. James MacDonald(시카고, Harvest Bible Chapel 개척 목사)

나는 내 삶을 7살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 1967년 2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주일 저녁예배가 끝나고 나서였다.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나는 과연 나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너무 두려웠다. 집에 돌아가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울먹거리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결국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 즉 예수님께 나를 인도해주셨다. 십대에도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했

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나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5. Mark Driscoll(시애틀, Mars Hill Church 개척 목사)

나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났다. 가톨릭 신자 중 일부는 예수님을 알지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따님이 성경을 주었다. 그녀는 바로 아내이다. 대학교 때 나는 철학수업을 위해 로마서를 읽었다. 결국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진리를 이해하게 됐다. 그때만 해도 나는 도덕적으로 관찰해보고, 그러한 도덕적 궁지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6. Jack Graham(텍사스, Prestonwood Baptist Church 담임)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나에게 가족의 신앙은 유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6살 무렵 나는 천막부흥회 현장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나 역사를 의심한 적이 없다. 이 모두가 바로 부모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신앙의 유산덕택이다.

7. T. D. Jakes(달라스, Potter's House 담임)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무척 아프셨다. 그는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다. 그런데 무려 6년간을 병상에서 신음하시다가 16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엄청난 좌절이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원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축복으로 다가왔다. 바로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됐기 때문이다.

가정과 친구, 학교에서 예수그리스도 영접 하이라이트는 거듭남...16세 이전이 중요

(2면에서 계속)

이들 언론들의 논지는 바로 "스포츠는 스포츠로만, 스포츠를 통한 기독교 전파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주장은 아직 대부분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아직은 '티보 편'이 많다는 얘기이다. 거친 폭력과 티프함이 상징인 미식축구 현장에서 티보는 울기

까지 했다. 즉 2009년 시즌 내내 줄곧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플로리다 대학과 역시 전승으로 랭킹2위에 올라있는 알라바마 대학과의 경기였다. 결과는 예측을 뒤엎고 알라바마 대학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가 끝나고 티보라는 선수가 온 것이다. 이 선수가 온 것이 어쩌서 다음날 톱뉴스가 되었다. 운동선수가 울다니, 창피하지도 않은가? 라는 논조

로... "티보우, 왜 우냐?"라고 기자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코치에게, 동료선수들에게 좌절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이처럼 미식축구라는 거친 필드에서도 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티보는 게임 도중, 또는 끝나고 난 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Tebowing한다'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는 혼자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덴버 브롱코스의 딱딱 같은 프로 풋볼 선수들이 다 같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무릎 꿇는 모습을 TV중계를 통해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결론으로, 미식축구팬들은 수퍼볼이라는 말만 들어도 "와아~!"하는 환호성을 지를 만큼 수퍼볼 시즌을 좋아한다. 어느 팀이 챔피언이 되는 상관없이 수퍼볼 경기 시

간만큼은 모든 미국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점령지를 찾아 나선 선수마냥, 장면 하나하나에 그리고 과격하고 거칠면 거칠수록 열광한다. 따라서 경기장을 통째로 뒤흔드는 관중의 함성, 터치다운을 향한 질주와 격한 몸싸움, 그리고 뜨거운 치즈가 듬뿍 올라간 나초칩이 2월 5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팀 티보같은 신앙인이 내

년의 슈퍼볼을 대비하고 있다. 비록 올해에는 터치다운을 끝내고 새파란 잔디 구장 저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티보는 벌써부터 NFL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슈퍼볼에는 미식축구에 문외한일지라도 크리스천 모두가 티보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소원해본다.

사 고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할렐루야 기독교회 (718)762-0011
한국서적 (718)762-1200
임마누엘피아노(NJ) (201)943-567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호산나서점 (626)810-0014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회 (323)766-8793
(이외 신학대학 및 은행과 마켓)

▶ 기타지역

커네티컷: 하트포드 제임장로교회 (860)643-4738
플로리다: 템파한인장로교회 (813)881-0069
조지아: 아틀란타 말씀사 (678)957-1021
일리노이: 헤브론교회 (847)394-8454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큰무리교회 (301)476-7613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 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텍사스: 텍사스한인장로교회 (215)945-1512
새한교회 (215)402-992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332-5656
시카고: 시카고 기독교복음방송 (847)583-0191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코미널

코미널 - 교회 성장, 본질이 묘책이다

이 책은, 교회 성장의 원리를 코미널 즉,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 이 세 단어로써 찾고 있다. **코이노니아(koinonia)**란 우리말로 '친교, 교제, 사랑'이며 **미션(mission)**이란 사명, 선교' 등의 뜻이다. **멀티플리케이션(multiplication)**이란 '증식, 번식'인데, 모든 생물은 증식 능력이 있고 증식을 하게 되듯이 거듭남 그리스도인이나 성령 충만한 교회 역시 생명력이 있어 증식할 능력이 있고 증식해야 한다는 원리다. 두 명의 목회자와 한 명의 멘토가 여행하면서 각 여행지의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토론하고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방식이며, 원리 편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코미널 - 김 집사의 목양행전

김집사라는 평신도가 태국목장이라는 하나의 소그룹에 코미널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나가는가를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감으로써, 적용편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코미널 - 김 집사의 목양행전
10,000원 / 228면

코미널 - 교회 성장, 본질이 묘책이다
14,000원 / 392면

이강천 목사

서울신학대학 동 대학원, 미국 예즈베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육군 교목을 역임하였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경남 밀양교회, 영동중앙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였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선교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바나바훈련원 원장으로 목회자,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를 재우장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 바나바훈련원은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강화와 치유사역, 그리고 교회경신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성과 기장, 구세군, 예장 합동 등 교파를 초월해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저서로는 그의 성령사역일대기를 기록한 「바나바행전, 전략적 중보기도,」 성령사역으로의 초대, 「세계를 움직이는 영성,」 생명의예배, 그리고 「자성회대의 축복」이 있다.

● 한글인터넷주소 쿼런, 쿼런출판사 ● 홈페이지 www.queran.co.kr ●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전화 (02)747-1004 ● 쿼런출판사

신앙칼럼



경청의 은혜

(傾聽)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는 선언한다.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듣는 일, 들음 중에 가장 바르게 듣는 태도를 경청이라고 한다. 누가 나에게 말한다 지금 내가 꼭 들어야 할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데 익숙하다. 듣기

보다 말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는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기도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말을 많이 한다. 말을 잘 하면 할수록 많이 이루어질 줄 아는 것처럼 자꾸만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기도는 듣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잘 듣는 데 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열마

나 많이 말하는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는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인생이 잘못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복을 받아 다 복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수리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공격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존심이나 건드리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다. 내 자식 잘되기를 원하시는 마음뿐인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들을 때 "오늘 분명히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리라 그러니 어찌하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못된 내 인생

을 수리하리라!"는 단호한 마음이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배신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 무엇인가?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여러모로 하셨을 때 경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래서 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변하여 축복 받아 끝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성한 말이 있더라도 분노하지 않기를 바란다. 누가 그 말씀을 전하든지 내가 꼭 들어야 할 나를 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 따라 나를 고치겠다

는 자제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나를 더 좋게 변화시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경청하는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상대방을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리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도 소중한 인격이다. 밀어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그 인격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지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해도 그 속에 들을 것이 많이 있다. 모자라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 속에 배울 것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던지 그 인격을 존중하고 경청하면 많은 것을 얻고 배울 것이다. 결코 말하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무시하고 밀어내지 말고 겸손하게 경청해서 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자!

우리 인생은 경청만 해도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 뿐 아니라 사람의 말도 경청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자주 들으려고 하라. 자주 배우려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님을 주셨는데 귀는 돌이나 주신 것이다. 평생 말씀을 통해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경청의 은혜,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열어주신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주시는 말씀을 내 인생을 수리해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고쳐 수리해나가기기를 바란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바꾸겠다고 결심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푸/ 른/ 초/ 장

정필도 목사 (수영로교회 원로)



구역성경 육기에 보면 욥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내와 아들 일곱에 딸 셋 10남매가 있었고 자녀 중에서 속 씩이는 자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물질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은 큰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신앙생활에는 게으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

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대개 이런 일을 당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슬퍼할 텐데 욥은 "일어나 결투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서 가렵고 괴로워서 잣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긁었습니다.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을 떠나갔습니

문에 받은 고난이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억울한 고난입니다. 바로 욥이 받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고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도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축복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욥은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인데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지

는 것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진 후에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누리보았더니 그게 좋고 복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2:11). 헛된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전2:17)'라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괴로움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욥기 23:10

욕기 1:8에 보면 욥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욥 외에 없다고 인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땅의 축복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믿음의 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신앙의 복까지 모두 받은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1:20-22)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올 때 알몸으로 왔으니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고 누린 것인데 다시 거둬 가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인지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욥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아내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종기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욕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다 받은 것입니다. 명예, 권세, 건강, 가족, 친구,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보다도 그에게 더 큰 고통이 된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원인을 알기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19-21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당한 고난이요, 두 번째는 죄가 있어 받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해 죄 때

1. 그러나 욥에게는 이렇게 큰 시험이 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23:10 말씀이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욥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축복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2.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금은 괴롭지만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42:5-6). 신앙의 수준이 달라졌 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따라가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주를 내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 감정의 재산과 10남매의 자녀를 주셔서 크게 축복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교육칼럼

Teaching Method 개발 문화에 의한 접근 방법 2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지난 주간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Nokia극장에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유명해진 가수의 공연이 있었는데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연의 기획이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000석이 넘는 대형 극장을 가득 메웠는데 둘러보니 10대부터 60대 이후까지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문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한 인사회에 여러 가지 행사나 집회를 돌아보면 이렇게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모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화적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서로 말은 잘 안 통해도 문화의 동질성 즉 함께 느끼고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문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60세가 넘으셨는데도 청년들과 팔씨름도 하고 함께 스키도 타고 함께 테니스도 합니다.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회교육 Teaching Method 개발에 대한 주제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는 대체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 과정을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기 때문

인 개인주의로 관계형성을 방해하며 특히 종교적 다원주의로 유도하여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몰아갑니다.

더 나아가 뉴에이지운동과 결합하게 되는데 뉴에이지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경지까지 계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교회 지도자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까? 특히 틈에이저가

아닙니다. 맞불을 놓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쏟으면 얼마 가지 않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선교단체나 더러는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함에 있어 특수한 아이들을 선발하여 그들만을 훈련시키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들에 의해 나머지 아이들을 추종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이념이나 교육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 잘 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보편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특별한 사람, 잘 난 사람,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계층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복음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교육에 있어 보편성, 기회균등, 평등은 당연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보다 더 전문화가 되어야 하며 Teaching Method의 개발과 Curriculum Setup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교육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회교육에도 학생 문화에 적응하는 풍부한 학습자료 필수 교재는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신학적 교육적으로 분석되어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과 청년들이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Teaching Method(교육방법)는 사제동행(師弟同行)에 있다고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의 사례를 보면 종교계 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선생님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내뽕당 이치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육의 실패는 바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제가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소통하려던 문화적 동질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격을 두지 않으시고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제동행의 진정한 롤 모

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정하기 원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차세대에 대한 글들을 모아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맞불을 놓아라'입니다. 맞불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그 의미를 설명한다면 오늘날 문화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오늘날 문화를 '포스트모던 문화'라고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철학사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대철학에서 추구했던 과학과 인간주체 그리고 이성적 사고에 대하여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주체의 분열과 이성 보다는 감성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의 특징은 대중문화의 파편화와 감각성 위주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Individualism(극단적 개인주의)과 Pluralism(다원주의)로 발전하며 종래는 뉴에이지운동(New Age Movement)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세대와 계층과 문화를 분열시켜 소통을 방해하고 극단적

된 자녀들은 이미 사춘기와 반항기를 접하고 있어 부모나 선생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접하고 있는 문화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받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맞불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지금 타오르고 있는 포스트모던 문화를 접한 청소년들에게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것보다는 건너 뛰어 아직 포스트모던 문화를 접하지 않은 유치부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6세-12세)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한 아이들이 몇 년 후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 성장하게 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세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양육 받아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는 그렇게 긴 세월이

가 없었다는 말인가? 있기는 있었지요. 그러나 지난 호에서 지적한 대로 선생님 혼자 읽고 말하고 설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학습 자료가 학습을 풍성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없는 수업은 죽은 수업입니다. 그런 데 그 자료가 학습자, 학생들의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성취동기를 부여하며 집중력을 증대 시키는 학습 자료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식견에 의해 학습자들의 나이와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인지와 능력과 세계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각 학년별로 일 년만 모으면 전 학년의 커리큘럼과 학습자료가 일차적으로 셋업(Setup)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자료와 학습자료가 구비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문화적 환경과 구체적으로 문화적 접근 방법에 의한 Teaching Method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나성에는 오래전부터 책방이나 마켓에 내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용 베리칩에 대한 책자나 CD가 나돌면서 그것이 13장의 666표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믿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목사님의 성경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성에서 김영희 전도사

A: 베리칩(veri-chip)은 미국 정부에서 출자한 ADS사가 개발한 생체칩으로 이 칩은 쌀알만 한 캡슐에 넣어서 인체에 삽입합니다. 이 칩의 구성은 128개의 유전자 코드/축전지/라디오 코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 정보저장, 위치추적, 유전자 코드인식들의 기능이 있고 크기는 11mm, 두께2mm로서 피부 속에 내장시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것을 의료용으로 사람의 몸에 시술하는데 그 시간은 10초로서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나 아니냐를 두고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1. 베리칩이 666표이므로 이 칩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유향 불이 붙는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성경신학적 구원론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건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베리칩, 단순 의료용인지 666표인지 구분해야

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Sola Fide 즉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요3:16, 엡2:8). 그리고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구원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10:28,29) 그러므로 Cal Sanderson박사나 어떤 인간이 만든 제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빼앗거나 무력화 시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롬8:35-39).

2. 성경을 바로 잘 해석해야 한다. 마귀를 경배 후에 표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이 등장하는데 짐승 즉 적 그리스도는 세상관력을 통해 교회를 압박 박해하고 어린양과 비슷하게 흉내 내는 새끼양 즉 거짓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교회를 비전리로 미혹하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계13:12).

그러나 계14:9-10절을 잘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가 먼저입니다. 사탄을 경배 후에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베리칩이 적그리스도의 표라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독재상황에서 강압적으로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우상숭배와 같은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표일 수도 있습니다.

(13면으로 계속)

www.onnurisj.org 사역자 청빙 산호세 온누리 교회 Onnuri Church of San Jose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미 국 \$100, 캐나다 \$11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유럽 \$190, 남미 \$190, 아프리카 \$190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 지역 발송을 책임지는 구독망입니다. 기사제보와 문서신교 후원금 발송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특별기고

“참 교회(眞正한 教會)를 세워 나가자” (하)

(마16:15-18, 요21:15-16)



최 낙 일 목사

(복음문서선교회, LA동부장로교회 협동목사)

교회에는 권징법이 있다. 곧, 교인이 범죄 하면(주일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등등) 권징 법으로 처리한다(치리: 수관징지, 징직, 면직, 근신, 출교). 오늘의 교회는 범죄 하는 일이 많으나 권징하는 교회가 없다. 권징 받은 교인도 없다. 이것이 교회 타락이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세속화(世俗化) 되어 기록이 없으므로 진리가 떠난 교회로서 겉모양도 사납다.

목사가 범죄 하면 노회나 총회가 권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권징 하는 총회도 없고 노회도 없다. 목사가 7계를 범해도 타 교회로 옮겨가면 그뿐이고 노회에서 권징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북한과 왕래가 잦아지면서 교계에서 목사들이 선한 목적으로 선교차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공작, 빵 공장을 설립 하려고 땅이들 북한에 갔다 왔다. 북한에 가면 일단 모란봉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동상' 에게 참배해야 한다고 한다. 호텔에서 들어가면 한방중에는 미인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화 되어있다. 북한에서는 그것을 몰래 카메라에 담는다고 한다.

이 일은 교회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널리 잘 알고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 같은 이야기를 테니스 운동하러 갔다가 그들에게서 반문을 받고 얼굴이 뜨거워서 몸 돌 바를 모르고 창피해서 변명하느라고 진땀을 뻘 일이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상에 절을 하고 불순한 행동을 하고 돌아온 목사님들 중 권

징 받은 목사가 하나도 없다. 권징한 노회도 없다. 총회도 없다. 권징이 없으면 참 교회를 상실한다. 권징이 없으면 더 타락한다. 권징이 없으면 더 많은 죄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권징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다. 권신도도 범죄 해서는 안 되는 계명을 장로가 범했는데도 권징이 없으면 무엇으로 교회를 깨끗케 할 것인가? 방안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가 섬십할까봐... 처리하면 판 교회로 갈까봐... 교인들에게 망신 할까 염려스러워서 놓아두는 것은 교회를 더 어지

러기신 목사님이 어느 날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서더라.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묻고 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집사람과 싸우셨구나!’ 느껴졌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다음 주일, 이기신 목사님은 사모님이신 아내를 ‘부모공경’ 안한 죄를 지적하고(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치리했다. 이 일은 유명한 이야기다.

작은 일에 진리를 세워나간 이기신 목사님... 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8년간 옥살이 하고 해방되어 출옥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복의 공산당들에

있었다면 몰래 피우는 담배를 끊지 않았을까? 또,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자진해서 근신하고 목사에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목사의 책임이다. 능력 있는 목사의 설교자가 아니다. 말만하고 행치 아니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안 된다. “물욕 정욕 사욕 빈이면, 진리 지혜 능력 부”니... 목회하는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한다.

결론

큰 교회를 만들려고 인본주의를 쓰지

요즘 교회는 범죄는 많으나 권징 없어 타락 목회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교인 가르쳐야

럽게 하는 처사이다. 죄를 범한 장로를 망하게 하는 책임을 그 교회 목사가 져야한다. 그리고 권징을 안하면 그 죄가 누룩과 같이 교인들에게도 만연되어 나간다.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해 나간다.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간다.

권징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이 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원리다. 옛날 교회는 권징을 많이 했다. 권징 한다고 해서 교인이 줄어들지 않는다. 교회가 깨끗해져서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참 교회로서 거룩함이 나타난다.

게 순교의 죽음으로 진리를 더욱 빛냈다.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권징을 합니까? 안 한다면 교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 장로를 매우 칭찬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 칭찬 받은 장로에 대하여 ‘담배 피는 장로’로 알고 말해주더라는 것이다. 남 몰래 담배 피는 것을 본 교회 목사가 알 리가 없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가 10분의 1이라도

않고,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수단을 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끼여들어서 앞드려 눈물 흘리는 목사가 아쉽다.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교인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라.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목사에게 달렸다. 목회자에게 전적책임이 있다. 교회타락은 목사의 책임이지 교인의 책임이 아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교인도 타락한다. 고 박윤선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사랑할까? 예수를 사랑함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끝)

(6면에서 계속)

종립의 위험에 직면한 몰몬교회는 대법원의 판결들을 계기로 일부다처제를 포기했고 1896년 몰몬교 탄생의 본거지였던 유타 주는 미국의 합법적인 주로 승인을 받았다.

몰몬교는 개신교의 가르침이 통념으로 되어있던 19세기 미국의 모든 전통과 규칙들을 깨뜨렸다. 그들은 몰몬교 창립자인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그의 “몰몬책”을 개신교의 성경처럼 신성시하고 있다. 그들은 몰몬교의 모든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일부다처제)을 종교적 의무라고 공언했다. 유타 주에서 유령된 일부다처제는 캔사스 주에서 처음 노예제를 시도할 때에 제기된 것과 비슷한 총체적인 헌법적 위기를 야기시켰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캔사스 주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기에 혈안이라고 본 것처럼 일부다처제를 반대했던 미국인들 역시 이를 옹호했던 몰몬교단을 여성의 노예화와 더 나아가 미국 내 신권 정치 확대의 시작으로 보았다.

1856년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선언문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야만적 유폴인 일부다처제에 노예제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음 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뷰캐넌은 유타에 있는 몰몬교단 민병대와 대치하기 위하여 연방군을 파견하기까지 했다.

1862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중혼을 금지하는 첫 번째 연방법에서 서명했다. 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몰몬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1879년에 헌법이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종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다처제의 불법성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몰몬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이어졌고 그들의 투표권과 배심원 자격은 박탈되었으며 결국 당시 소수의 몰몬 신도들 사이에서만 행해졌던 복수 결혼제도의 종식은 시작됐다. 일부다처제도가 없어지면 조만간 쇠퇴할 것이라고 보았던 안티 몰몬교의 예측과는 달리 몰몬교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2008년에는 3백10만명의 어른 교인을 갖춘 종교단체로 급성장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2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2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2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고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점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2.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3. Examination Subjects
4. Accompanying Document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6. Miscellaneous Information
7. Submission Address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73. 처음이 좋았다(4)-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12).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땅에 풀(grass)과 씨를 맺는 채소(herb)들과 씨가 들어 있는 과일나무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창세기 1장을 통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여섯 번 나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 세계 전체가 완벽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여섯 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도 창조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사람의 음식으로 주실 것이었는데(창1:29) 정말로 맛있고 영양가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화와 존키의 왕관을 쓸 사람(시8:5)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보셨어도 부족함이 없었을 정도로 좋았다.

여기서 씨 맺는 모든 채소(herb)라 함은 씨를 맺는 모든 식물들을 말하고 있어 채소뿐 아니라 버나보리 그리고 옥수수나 밀 등 곡식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 채소들과 과일들은 정말로 맛이 있었을 것이고 영양분도 풍부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채소와 과일들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중요한 식품들이다. 최근에는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문제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채소와 과일이 역시 좋았다는 생각을 해본다(창조 셋째 날 창조된 풀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의 먹이로 주셨다. 동물들이 풀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사람

은 소화시키지 못한다). 과일은 각종 미네랄과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들이 풍부하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사과일 것이다. 사과는 어렸을 적 아무 것도 먹지 못할 만큼 아팠

연구한 게 종류의 예를 들면 방주에서 나온 한 쌍의 개 종류에서 각종 늑대들, 자칼, 카오티, 디고, 그리고 450가지의 순종 개들이 한 종류다. 실제로 이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서로 교배가 된다. 한 조상에 게서 나와 같은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 셋째 날 출현한 각종 풀들과, 채소와 과일나무들도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오렌지, 자몽, 레몬, 탠저린, 꿀, 탠자가 과일나무에서 한 종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과일나무들의 조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도움이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된 것이다. 이 과정을 변이(variation)이라고 부른다.

변이는 생물체의 모습이 바뀌는 것인데 새로운 구조가 생겨나는 변화가 아니라 같은 구조 안에서 모습이 다양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꽃 색깔이 바뀌거나 잎이나 열매의 크기가 바뀌는 등의 변화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유전정보가 재조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보이는 것(what is seen)은 나타난 것(what was visible)이 진화과정을 통해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조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사실로 믿으라는 말이다. 복숭아꽃이 사과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복숭아나무가 사과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과나무가 복숭아나무로 변한 것도 아니다. 복숭아 종류는 처음부터 복숭아 종류로, 사과 종류는 처음부터 사과 종류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크리스천들이 중요시하는 구원과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물건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믿음을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을까? 많은 크리스천들은 진화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구원은 전혀 상관없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진화도 믿고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진화는 창조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힘이 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러므

진화란 없던 유전정보가 새로 생겨 생명체가 변하는 현상 같은 구조 안에서 모습이 다양하게 되는 변이와 달라



채소와 과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기쁨이다.

을 때도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던 기억이 있다. 이 사과는 효능뿐 아니라 맛도 좋아 계속 먹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배, 복숭아, 살구, 포도, 자몽, 무화과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각각 채소와 곡식들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상에서 출현한 모든 생명체를 말한다.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가끔은 유전정보를 잃어버렸을 경우 즉 돌연변이의 결과로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진화란 새로운 구조가 생겨나는 경우로 없던 유전정보가 새로 생겨나야 하며 그 결과로 생명체가 변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진화란 진화론자들의 소원일 뿐 증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진화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로 진화를 믿으면, 죄와 죽음이 상관없다는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창조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즉 ‘진화’라는 신을 믿는 셈이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죄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 1계명(출20:3)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배도 많이 참석했고 교회 행사들에도 많이 참석해 보았다. 교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의례 따라 나오는 것이 다하나 식사다. 먹기 전에 기도를 할 때면 음식을 대접한 사람을 축복하고, 준비한 사람을 축복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지극히 포괄적이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감사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들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들을 앞에 놓고 자기 형상들을 위해 그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 날처럼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고난은 주님에 대한 신뢰도를 재는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같은 너 야곱 아 너희 이스라엘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사41:10, 14, 49:13).

아무리 당하는 고통이 크다 해도 이는 믿음의 시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이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죽을 만큼 무섭게 인생의 폭풍을 맞아도 쉽사리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소원 사랑을 놓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차피 누구나 손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각기 가지 모양새의 탐욕들을 놓지 않고 움켜쥐려 발버둥을 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지옥 불에 들어가니, 불참하였는 탐욕을 가져 없이 치시는 고통을 통해 부질없음을 깨닫고 인생에서 다 놓아버리는 연습 많이 많이 하고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아니런지요?

믿는 자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마음에 깊은 곳에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그 대상을 드러내는 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초죽음의 훈련을 통해 차차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을 따르며 기다리다보면 혼자 내동댕이쳐 버림 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거친 폭풍우 가운데서라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가운데 감사의 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평안히 모든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안식하다보면 관계된 모든 일들을 멋지게 고통스러 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까이 체험하는 날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없이 완전히 기진하여 포기상태에서 기적의 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이미 써 보고 완전 파산한 상태이기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한마디의 토를 달수도 없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전심을 다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바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힘이 닿는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밀어내도 참아주시고 바라볼 때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정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우리는 기막히게 복 받은 사람인지요. 하나님은 주는 복은 마다하고 언제나 물이 나오지 않을 영동한 곳에서 우물 파는 이런 못난 것들을 어찌 그리도 무궁히 사랑하시어 기다려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당신의 인자는 크고 커서 온 땅에 스며드네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네 곁에 있으니 두려워도 놀라지도 말고 모든 상처 다 닦아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없이 안아주시며 달래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제 탓인 것을 하나님의 탓 인양 투정해도 “오냐 오냐” 그저 다 받아주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무궁한 인자하심을 영원히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즐거이 기뻐 누립니다! 감격 감격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뉴욕코탕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8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sbm.or.kr
SBM이 자랑을 써드립니다.
SBM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원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원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원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JI AL MOVEMENT
서울 (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이메일이나 인터넷에서 이용하시거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미주크리스천신문
가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www.chpress.net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60
Tel. (516) 86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Tel. (718) 886-4400
lightloverny@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의 실이 나옵니다.
전미주 및 해외인민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본 선교회, 신학교, 기도회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 Yemomi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66
E mail : LA@chpress.net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명 한글: 영문:
⑤ 사적주소
⑥ 사적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회(학파)명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허당사양에 표시를 하세요

150개 기관/교회에 총 1만 여포 배부

미주사랑의쌀나눔운동 2011년 사랑의쌀 종합보고

2011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대표 한기형 감독)는 약 120개 단체와 교회, 개인후원자 등이 참여해 총 150개의 나눔 사회봉사단체와 교회에 총 10,350포를 나누었다고 발표했다.

26일 오전 11시30분 타운 내 소향 식당에서 열린 2011년 사랑의쌀 종합보고회에서 이성우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부부장은 “총영사관 초청 만찬 모임을 시작으로 6차의 대표와 실행위원회 회의를 겸한 후원금 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5차



2011 사랑의쌀 나눔운동에 대한 종합보고회를 갖은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관계자들

례 21개 지역(마이애미, 샌디에고, 통한 나눔 잔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아리조나 투슨, 라스베이거스 등)을 10,450장의 선물교환권을 지역별로

배정하고 각 언론사의 기사보도와 후원 보고 등을 통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희민 목사, 한기형 감독, 송정명 목사, 최문환 장로 등 사랑의쌀 나눔운동 관계자들은 “이번운동이 교계뿐만 아니라 범 교포적으로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펼쳐져 감사하다. 앞으로 이 운동으로 인해 교계가 바로 세워지고 한인사회가 단결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랑의쌀 나누기 행사에 모인 쌀 중 2,500포는 히스패닉 등 타민족에게 나눠 민족을 초월한 나눔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일부 쌀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쌀을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뉴욕해외선교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해외선교회 김영환 회장 유임

1월 정기총회, 정순원 총무 외 임원단 모두 유임

뉴욕해외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 2012년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뉴욕에노교회(담임 김병욱 목사)에서 열려 전임회장단을 유임시켰다.

1부 예배는 노기승 목사 사회로 기도 환영인 목사, 말씀 정순원 목사, 축도 최창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복음을 위하여”(답후1:6-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계의 중심도시 뉴욕에 해외선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계선교를 하기 위하여”이라며 “복음을 위하여 ①반은 은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②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며 ③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2012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실천하는 계획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김영환 목사 사회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장인사, 회계보고, 총무보고가 이어졌으며 임원선거에서 전임 회장단을 그대로 유임키로 결

의했다. 다만 총무 회계를 맡은 지교찬 목사가 뉴욕을 떠나는 관계로 정순원 목사가 선임됐다. 새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영환 목사 △부회장 황영진 목사 △총무회계 정순원 목사 △서기 박성원 목사.

1년 더 유임하게 된 김영환 회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며 회원들의 협력을 부탁했다.

20년 전 설립된 뉴욕해외선교회는 매년 선교지에 교회당건축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에파도르(김창호 선교사)에 3천 달러를 보내고 선교 보고를 받은 후 2천 달러를 추가 보내기로 결정한다.

이날 참석한 회원 외에 김용익 목사, 문석호 목사, 박성원 목사, 방지각 목사, 손한권 목사, 이규본 목사(가나다순)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르완다에 과학영재학교,국제학교 건축

월드미션프론티어, 국제학교 건축비 20만 달러 소요

월드미션프론티어(대표 김평욱 선교사)가 르완다 키갈리에 설립 중인 과학영재학교 및 국제학교 건축을 위해 24일 타운 내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교계 및 한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김평욱 대표, 그레이스최 남가주

지부장 등은 이날 “아프리카의 허브로 급부상 중인 키갈리에 현지인들을 위한 과학영재학교(7-12학년)와 우간다, 케냐, 수단, 콩고 등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등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1-12학년)를 나란히 짓고 있다”면서 “국제학



르완다 키갈리 과학영재학교 및 국제학교 건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은 월드미션 프론티어 스태프들

교 건축을 마치는데 필요한 20만 달러를 남가주를 중심으로 모금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르완다 인근에 사역중인 한국선교사는 탄자니아에 100명 케냐에 200여명 우간다에 100명 정도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이로비에 있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그러나 나이로비의 치안이 불안전해 선교사들에게 근심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교육환경, 그리고 치안이 안전한 르완다에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9일 월서연

합감리교회에서 르완다 과학영재학교 및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한아름 선교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월드미션프론티어는 지난 94년부터 18년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며 고아원 및 유치원 설립, 대형 복음화대회 개최, 5개국 12개 지역 종합선교센터 건축, 빅토리아호 병원선 건조 등의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213)663-3710, (714)337-5793, (714)447-8008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New Spirit Movement 포럼 및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세상을 윈도우로 보면 사명이 보인다”

New Spirit Movement 포럼 및 기도회 개최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가 대표로 있는 뉴스피릿무브먼트(New Spirit Movement, NSM) 포럼이 2012년 1월 24일 오전 10시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개최됐다.

NSM은 거룩한 기도운동, 거룩한 생활운동, 거룩한 개혁운동, 거룩한 생산운동, 거룩한 나눔 운동 등 5대 실천강령을 중심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되, 홀리 라이프(Holy Life), 홀리 패밀리(Holy Family), 홀리 네이션스(Holy Nations)를 표방해 실현하며, 홀리 월드(Holy World)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날 열린 포럼은 창립 감사예배를 앞두고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돼 1부 예배는 박용덕 목사 사회, 신중은 목사(오렌지카운티목사회 회장)

의 기도, 영연민 목사(OC교협 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영 목사는 설교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복음의 본질’임을 강조했으며, 이종은 목사(OC교협 중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열린 2부 포럼은 NSM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후, NSM대표 박용덕 목사가 개요와 사역비전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10만명 회원 확보와 영적 리더로서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박 목사는 세상을 미러(Mirror)가 아닌 윈도우(Window)로 보면 우리의 사명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총신대학교 고 조해수 총장의 장례식

조해수 목사 소천

미주총신대학교 총장 조해수 목사가 지난 23일 향년 75세로 소천했다. 고 조해수 목사의 입관예배는 지난 26일 오후7시에, 발인예배는 27일 오후1시, 하관예배는 2월 2일 오전 11시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으로 거행됐다. 경상북도 대구 태생으로 67년 3월 경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총신예과(총신대 전신) 수료, 명지대(B.A), 총신대원

(M.Div, Th.M),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D.Min, Ph.D) 등에서 학위를 수여받았다. 총연교회 강도사를 거쳐 부산전교회(14년), 서울청암교회(4년), 나성총연교회와 칼례시교 한인교회에서 사역했다. 교수경력도 대구신학교, 침신, 대한신학교, 서울총신대 신대원 등에서 교수로 부산장신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조서진 여사와 2남2녀 6명의 손자녀가 있다. (박준호 기자)



대전침신 총장일행과 뉴욕 뉴저지 지방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 현지법인 설립 본교 적극 후원

뉴욕뉴저지 한인침례교, 침신 총장일행 환영

한인침례교(총회장 최창섭 목사) 뉴욕 뉴저지 지방회원들이 모여 한국 대전침례교신학대학교 도한호 총장일행 방문을 축하했다. 장길선 뉴욕지방회장 사회로 시작된 모임은 이창선 목사 기도로 총장 인사와 최창섭 총회장 인사가 있었다.

도 총장은 학교 상황을 설명하면서 “1954년 대전에서 설립 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신학교대학 중 일반학과를 제외한 신학 신학교 중 최대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침신은 현재 재학생 3천여 명과 유치원, 사회복지관, 한국어학당, 외국인학교 등 1천여 명을 포함 4천여 명이 재학 재직하고 있다.

도 총장은 “18개 건전 신학교 중 수도권에 캠퍼스가 없는 유일한 침신인 이번에 동두천에 1만평 부지를 매입해 제2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뿐 아니라 카작스

탄 등 신학교가 없는 곳에 제3, 제4 캠퍼스 설립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 총장은 “학교가 어렵지만 장학금은 증액하고 교직원 봉급 동결, 예산 10%삭감 등 노력하고 있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또 침신 후원을 위해 미 현지법인(담당 이선일 목사)을 설립했으며 뉴욕지방회가 후원한 1천 달러를 시드머니로 남가주에서 5백만 달러 등 후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뉴욕지방회에 감사를 표했다.

최창섭 총회장은 미주총회 상임 위 안건으로 침신 후원을 제의했는데 타고 출신들 목회자들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총회적으로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뉴욕일원 선후배 목회자들은 본교 총장일행과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했다. (유원정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usa@samcare.org
schohol@samcare.org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교/ 선교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격동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백달 / 터운내 무료배송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콤팩트 디스크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유통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818.382.4896 Fax: 818.382.4184 Email: wordoflife@earthlink.net

로스앤리프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하기
기독교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한인 '목소리 내기' 교계도 합세

교계 단체, 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 서명운동 전개

LA 지역 한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한인단체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CRC)가 지난 25일 공개한 공식 시 선거구 재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한인 타운은 여전히 4개의 선거구로 분리돼 각 선거구에 편입돼 있다. 이는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이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가주교협, LA한인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PAVA, 남가주 한인음악연합회(K.A.F.R.A) 등 15개 한인단체들은 27일 남가주 교협 회의실과 30일 LA한인회 대회의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3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선거구는 10년마다 재조정되기 위해 한인 타운을 포함하는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면 한인들은 타민족과 타 커뮤니티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며 한인들의 권익은 요원해지게 된다.

이 단체들은 동서로는 웨스턴부터 버몬트까지, 남북으로는 올림픽에서 101 프리웨이를 경계로 하는



LA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변영의 남가주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2월 11일까지 진행한 뒤 12일 LA시의회와 선거구재조정위원회(CRC)에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공청회는 지난 1월 3일 밴나이스에서 열린 제1차 공청회에 이어 2월 1일 오후 6시30분 월서이벨극장에서, 그리고 8일 다운타운에 위치한 시청에서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 한인단체장들은 2월 1일에 열리는 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공청회에 한인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변영의 남가주교협회장은 "한인타운 선거구가 하나가 되도록 각 교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많은 분들이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환 총무는 "이번 선거구 단일화 이슈는 단지 기독교적인 이

슈가 아닌 이민사회의 상징인 한인타운의 이슈이다. 또한 LA한인타운은 단지 한인 타운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만의 이슈가 아닌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자, 부동산이 있는 자,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모든 타민족의 이슈"라고 강조하며 "2월 1일에 많이 나와서 한 사람당 주어진 1분의 시간 동안 우리 의사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장소인 월서이벨극장의 수용인원은 1,200명이다. 그러나 더 많은 한인들이 그곳에 모여 한인들의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공청회에는 영어로 통역을 하는 요원이 배치돼 영어를 하지 못하는 자들도 한국말로 의사를 표현해도 된다.

선거구 재조정위는 2월 한 달 동안 각 지역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말에 최종안을 마련, 3월초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7월 전 최종 선거구 재조정안을 확정짓는다.

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 서명을 위한 용지는 kacla.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정기총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황성삼)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가 2월 5일(주) 오후6시 타운내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린다. ▲문의: (714)393-1439/회장, (310)923-1064/총무

국제결혼부부 무료검진

크리스천헬스케어재단(이사장 변영의 목사)이 대구시 초청 국제결혼부부 무료검진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국병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대구시에서 국제결혼 한 부부를 초청하게 된다. 가격은 1,499달러(세금과 1박2일 여행포함)참가를 원하는 자들은 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출발날짜는 3월 19일(월)이다. ▲문의: (213)384-3200, (213)384-3210

오래근한인교회장로회 임시총회

오래근한인교회장로회(회장 한영수 장로) 임시총회가 2월 5일(주) 오후 6시(5시부터 식사 시작) 포트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오광석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71)227-9299

소중한사람들 6개 지역사역확장

창립10주년 및 한국 일터 오픈 감사예배

소중한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한국 소중 한사람들 일터 오픈감사예배가 30일 오후 7시 30분 로스앤젤레스 교회의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수철 목사는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역할 수 있었다. 미국 외에 한국과 멕시코, 북한, 미얀마, 아이티 등에 소중 한사람들 사역을 확장해 사역하게 됐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능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노숙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앞으로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사역,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용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훈순헌 장로(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가기도를 했으며 소중한사람들 10주년 사역 동영상 소개, 김수철 목사 인사말,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막9:3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송정명 목사(미기총 대표회장)와 김일량 장로(한국장로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축사를, 최순식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어 나성순 복음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랑의빛선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등에서 감사의 글이 담긴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이기홍 목사(교문)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0회 창작 성가의 밤을 마치고 작사 작곡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감사 찬양도구로 쓰임 받도록

제10회 창작성가의 밤 성향, 총18곡 발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황성삼)가 주관한 제10회 창작 성가의 밤이 지난 29일 오후 6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백경환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성가의 밤은 한인기독학장단(지휘: 백경환 목사, 반주: 이지은), 캘리포니아 매스터코랄(지휘: 김원재, 반주: 김효정), 한아름선교학장단(지휘: 이경호 목사, 반주: 이해경), CALA&Choraleum(지휘: 이경원, 반주: 오현희), 아이노스여성중창단(지휘: 김혜정, 반주: 백해란), 송실OB남성합창단(지휘: 이영두, 반주: 김유경) 등이 출연해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와 작곡가들이 만든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특히 각 합창단들이 한 곡씩 부를 때마다 지휘자가 곡명과 작사 작곡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성가의 밤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를 연합합창으로 부른 후 김혜성 목

사의 축도로 마쳤다.

황성삼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작성가 분야의 불모지였던 남가주 교회음악계에 '창작성가의 밤'이 씨앗이 돼 해마다 소중한 결실을 거둬들이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창작성가의 밤을 통해 발표되는 성가곡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곡은 △그길(전정숙 작사, 김유신 작곡) △시몬의 영광(T. Hastings 작사, 윤민재 편곡) △기도동산(원희천 작사, 박계령 작곡) △시편23편(권길상 작곡) △여호와 만군의 주여(남정숙 작사, 이혜경 작곡) △여정에 오르며(최선호 작사, 지성심 작곡)를 비롯해 총 18곡을 발표했다.

(박준호 기자)



소중한 사람들 10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개최된 리빙 캔버스 특별 찬양집회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연주한다

MK로 구성된 '리빙 캔버스' 특별 찬양집회

MK(Missionary's Kid·선교사 자녀) 5명으로 구성된 밴드 리빙캔버스(Living Canvas)가 27일 오후 6시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Living Canvas Album Release Night'이라는 주제로 자신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를 담은 첫 음반을 기념하는 특별 찬양 집회를 개최했다.

일본, 온두라스,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성장하다가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샘 김, 데이빗 김 형제와 이준일 형제, 신상원·신요한 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리빙캔버스는 대학에서 전자기타 및 리코딩 야트, 기타, 바이올린, 키보드 및 작곡 등을 전공한 4명과 오랫동안 드럼을 연주해 온 1명으로 구성됐

다. 이날 집회에서는 'Get up Get up', 'Jesus Blood', '주님의 사랑', 'Home', 'Mission Song' 등을 불렀다.

이날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김한요 목사는 "리빙 캔버스의 음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얻은 듯 하다. 이 음반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져지길 바란다. 이 음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반구입 문의는 livingcanvas-worship@gmail.com, (434)229-828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열아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리디아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라이브라 삼성장로교회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병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전 1:30, 5부예배: 오전 7:30, 6부예배: 오전 9:30, 7부예배: 오전 11:30, 8부예배: 오전 1:30, 9부예배: 오전 7:30, 10부예배: 오전 9:30, 11부예배: 오전 11:30, 12부예배: 오전 1:30, 13부예배: 오전 7:30, 14부예배: 오전 9:30, 15부예배: 오전 11:30, 16부예배: 오전 1:30, 17부예배: 오전 7:30, 18부예배: 오전 9:30, 19부예배: 오전 11:30, 20부예배: 오전 1:30, 21부예배: 오전 7:30, 22부예배: 오전 9:30, 23부예배: 오전 11:30, 24부예배: 오전 1:30, 25부예배: 오전 7:30, 26부예배: 오전 9:30, 27부예배: 오전 11:30, 28부예배: 오전 1:30, 29부예배: 오전 7:30, 30부예배: 오전 9:30, 31부예배: 오전 11:30, 32부예배: 오전 1:30, 33부예배: 오전 7:30, 34부예배: 오전 9:30, 35부예배: 오전 11:30, 36부예배: 오전 1:30, 37부예배: 오전 7:30, 38부예배: 오전 9:30, 39부예배: 오전 11:30, 40부예배: 오전 1:30, 41부예배: 오전 7:30, 42부예배: 오전 9:30, 43부예배: 오전 11:30, 44부예배: 오전 1:30, 45부예배: 오전 7:30, 46부예배: 오전 9:30, 47부예배: 오전 11:30, 48부예배: 오전 1:30, 49부예배: 오전 7:30, 50부예배: 오전 9:30, 51부예배: 오전 11:30, 52부예배: 오전 1:30, 53부예배: 오전 7:30, 54부예배: 오전 9:30, 55부예배: 오전 11:30, 56부예배: 오전 1:30, 57부예배: 오전 7:30, 58부예배: 오전 9:30, 59부예배: 오전 11:30, 60부예배: 오전 1:30, 61부예배: 오전 7:30, 62부예배: 오전 9:30, 63부예배: 오전 11:30, 64부예배: 오전 1:30, 65부예배: 오전 7:30, 66부예배: 오전 9:30, 67부예배: 오전 11:30, 68부예배: 오전 1:30, 69부예배: 오전 7:30, 70부예배: 오전 9:30, 71부예배: 오전 11:30, 72부예배: 오전 1:30, 73부예배: 오전 7:30, 74부예배: 오전 9:30, 75부예배: 오전 11:30, 76부예배: 오전 1:30, 77부예배: 오전 7:30, 78부예배: 오전 9:30, 79부예배: 오전 11:30, 80부예배: 오전 1:30, 81부예배: 오전 7:30, 82부예배: 오전 9:30, 83부예배: 오전 11:30, 84부예배: 오전 1:30, 85부예배: 오전 7:30, 86부예배: 오전 9:30, 87부예배: 오전 11:30, 88부예배: 오전 1:30, 89부예배: 오전 7:30, 90부예배: 오전 9:30, 91부예배: 오전 11:30, 92부예배: 오전 1:30, 93부예배: 오전 7:30, 94부예배: 오전 9:30, 95부예배: 오전 11:30, 96부예배: 오전 1:30, 97부예배: 오전 7:30, 98부예배: 오전 9:30, 99부예배: 오전 11:30, 100부예배: 오전 1:30, 101부예배: 오전 7:30, 102부예배: 오전 9:30, 103부예배: 오전 11:30, 104부예배: 오전 1:30, 105부예배: 오전 7:30, 106부예배: 오전 9:30, 107부예배: 오전 11:30, 108부예배: 오전 1:30, 109부예배: 오전 7:30, 110부예배: 오전 9:30, 111부예배: 오전 11:30, 112부예배: 오전 1:30, 113부예배: 오전 7:30, 114부예배: 오전 9:30, 115부예배: 오전 11:30, 116부예배: 오전 1:30, 117부예배: 오전 7:30, 118부예배: 오전 9:30, 119부예배: 오전 11:30, 120부예배: 오전 1:30, 121부예배: 오전 7:30, 122부예배: 오전 9:30, 123부예배: 오전 11:30, 124부예배: 오전 1:30, 125부예배: 오전 7:30, 126부예배: 오전 9:30, 127부예배: 오전 11:30, 128부예배: 오전 1:30, 129부예배: 오전 7:30, 130부예배: 오전 9:30, 131부예배: 오전 11:30, 132부예배: 오전 1:30, 133부예배: 오전 7:30, 134부예배: 오전 9:30, 135부예배: 오전 11:30, 136부예배: 오전 1:30, 137부예배: 오전 7:30, 138부예배: 오전 9:30, 139부예배: 오전 11:30, 140부예배: 오전 1:30, 141부예배: 오전 7:30, 142부예배: 오전 9:30, 143부예배: 오전 11:30, 144부예배: 오전 1:30, 145부예배: 오전 7:30, 146부예배: 오전 9:30, 147부예배: 오전 11:30, 148부예배: 오전 1:30, 149부예배: 오전 7:30, 150부예배: 오전 9:30, 151부예배: 오전 11:30, 152부예배: 오전 1:30, 153부예배: 오전 7:30, 154부예배: 오전 9:30, 155부예배: 오전 11:30, 156부예배: 오전 1:30, 157부예배: 오전 7:30, 158부예배: 오전 9:30, 159부예배: 오전 11:30, 160부예배: 오전 1:30, 161부예배: 오전 7:30, 162부예배: 오전 9:30, 163부예배: 오전 11:30, 164부예배: 오전 1:30, 165부예배: 오전 7:30, 166부예배: 오전 9:30, 167부예배: 오전 11:30, 168부예배: 오전 1:30, 169부예배: 오전 7:30, 170부예배: 오전 9:30, 171부예배: 오전 11:30, 172부예배: 오전 1:30, 173부예배: 오전 7:30, 174부예배: 오전 9:30, 175부예배: 오전 11:30, 176부예배: 오전 1:30, 177부예배: 오전 7:30, 178부예배: 오전 9:30, 179부예배: 오전 11:30, 180부예배: 오전 1:30, 181부예배: 오전 7:30, 182부예배: 오전 9:30, 183부예배: 오전 11:30, 184부예배: 오전 1:30, 185부예배: 오전 7:30, 186부예배: 오전 9:30, 187부예배: 오전 11:30, 188부예배: 오전 1:30, 189부예배: 오전 7:30, 190부예배: 오전 9:30, 191부예배: 오전 11:30, 192부예배: 오전 1:30, 193부예배: 오전 7:30, 194부예배: 오전 9:30, 195부예배: 오전 11:30, 196부예배: 오전 1:30, 197부예배: 오전 7:30, 198부예배: 오전 9:30, 199부예배: 오전 11:30, 200부예배: 오전 1:30, 201부예배: 오전 7:30, 202부예배: 오전 9:30, 203부예배: 오전 11:30, 204부예배: 오전 1:30, 205부예배: 오전 7:30, 206부예배: 오전 9:30, 207부예배: 오전 11:30, 208부예배: 오전 1:30, 209부예배: 오전 7:30, 210부예배: 오전 9:30, 211부예배: 오전 11:30, 212부예배: 오전 1:30, 213부예배: 오전 7:30, 214부예배: 오전 9:30, 215부예배: 오전 11:30, 216부예배: 오전 1:30, 217부예배: 오전 7:30, 218부예배: 오전 9:30, 219부예배: 오전 11:30, 220부예배: 오전 1:30, 221부예배: 오전 7:30, 222부예배: 오전 9:30, 223부예배: 오전 11:30, 224부예배: 오전 1:30, 225부예배: 오전 7:30, 226부예배: 오전 9:30, 227부예배: 오전 11:30, 228부예배: 오전 1:30, 229부예배: 오전 7:30, 230부예배: 오전 9:30, 231부예배: 오전 11:30, 232부예배: 오전 1:30, 233부예배: 오전 7:30, 234부예배: 오전 9:30, 235부예배: 오전 11:30, 236부예배: 오전 1:30, 237부예배: 오전 7:30, 238부예배: 오전 9:30, 239부예배: 오전 11:30, 240부예배: 오전 1:30, 241부예배: 오전 7:30, 242부예배: 오전 9:30, 243부예배: 오전 11:30, 244부예배: 오전 1:30, 245부예배: 오전 7:30, 246부예배: 오전 9:30, 247부예배: 오전 11:30, 248부예배: 오전 1:30, 249부예배: 오전 7:30, 250부예배: 오전 9:30, 251부예배: 오전 11:30, 252부예배: 오전 1:30, 253부예배: 오전 7:30, 254부예배: 오전 9:30, 255부예배: 오전 11:30, 256부예배: 오전 1:30, 257부예배: 오전 7:30, 258부예배: 오전 9:30, 259부예배: 오전 11:30, 260부예배: 오전 1:30, 261부예배: 오전 7:30, 262부예배: 오전 9:30, 263부예배: 오전 11:30, 264부예배: 오전 1:30, 265부예배: 오전 7:30, 266부예배: 오전 9:30, 267부예배: 오전 11:30, 268부예배: 오전 1:30, 269부예배: 오전 7:30, 270부예배: 오전 9:30, 271부예배: 오전 11:30, 272부예배: 오전 1:30, 273부예배: 오전 7:30, 274부예배: 오전 9:30, 275부예배: 오전 11:30, 276부예배: 오전 1:30, 277부예배: 오전 7:30, 278부예배: 오전 9:30, 279부예배: 오전 11:30, 280부예배: 오전 1:30, 281부예배: 오전 7:30, 282부예배: 오전 9:30, 283부예배: 오전 11:30, 284부예배: 오전 1:30, 285부예배: 오전 7:30, 286부예배: 오전 9:30, 287부예배: 오전 11:30, 288부예배: 오전 1:30, 289부예배: 오전 7:30, 290부예배: 오전 9:30, 291부예배: 오전 11:30, 292부예배: 오전 1:30, 293부예배: 오전 7:30, 294부예배: 오전 9:30, 295부예배: 오전 11:30, 296부예배: 오전 1:30, 297부예배: 오전 7:30, 298부예배: 오전 9:30, 299부예배: 오전 11:30, 300부예배: 오전 1:30, 301부예배: 오전 7:30, 302부예배: 오전 9:30, 303부예배: 오전 11:30, 304부예배: 오전 1:30, 305부예배: 오전 7:30, 306부예배: 오전 9:30, 307부예배: 오전 11:30, 308부예배: 오전 1:30, 309부예배: 오전 7:30, 310부예배: 오전 9:30, 311부예배: 오전 11:30, 312부예배: 오전 1:30, 313부예배: 오전 7:30, 314부예배: 오전 9:30, 315부예배: 오전 11:30, 316부예배: 오전 1:30, 317부예배: 오전 7:30, 318부예배: 오전 9:30, 319부예배: 오전 11:30, 320부예배: 오전 1:30, 321부예배: 오전 7:30, 322부예배: 오전 9:30, 323부예배: 오전 11:30, 324부예배: 오전 1:30, 325부예배: 오전 7:30, 326부예배: 오전 9:30, 327부예배: 오전 11:30, 328부예배: 오전 1:30, 329부예배: 오전 7:30, 330부예배: 오전 9:30, 331부예배: 오전 11:30, 332부예배: 오전 1:30, 333부예배: 오전 7:30, 334부예배: 오전 9:30, 335부예배: 오전 11:30, 336부예배: 오전 1:30, 337부예배: 오전 7:30, 338부예배: 오전 9:30, 339부예배: 오전 11:30, 340부예배: 오전 1:30, 341부예배: 오전 7:30, 342부예배: 오전 9:30, 343부예배: 오전 11:30, 344부예배: 오전 1:30, 345부예배: 오전 7:30, 346부예배: 오전 9:30, 347부예배: 오전 11:30, 348부예배: 오전 1:30, 349부예배: 오전 7:30, 350부예배: 오전 9:30, 351부예배: 오전 11:30, 352부예배: 오전 1:30, 353부예배: 오전 7:30, 354부예배: 오전 9:30, 355부예배: 오전 11:30, 356부예배: 오전 1:30, 357부예배: 오전 7:30, 358부예배: 오전 9:30, 359부예배: 오전 11:30, 360부예배: 오전 1:30, 361부예배: 오전 7:30, 362부예배: 오전 9:30, 363부예배: 오전 11:30, 364부예배: 오전 1:30, 365부예배: 오전 7:30, 366부예배: 오전 9:30, 367부예배: 오전 11:30, 368부예배: 오전 1:30, 369부예배: 오전 7:30, 370부예배: 오전 9:30, 371부예배: 오전 11:30, 372부예배: 오전 1:30, 373부예배: 오전 7:30, 374부예배: 오전 9:30, 375부예배: 오전 11:30, 376부예배: 오전 1:30, 377부예배: 오전 7:30, 378부예배: 오전 9:30, 379부예배: 오전 11:30, 380부예배: 오전 1:30, 381부예배: 오전 7:30, 382부예배: 오전 9:30, 383부예배: 오전 11:30, 384부예배: 오전 1:30, 385부예배: 오전 7:30, 386부예배: 오전 9:30, 387부예배: 오전 11:30, 388부예배: 오전 1:30, 389부예배: 오전 7:30, 390부예배: 오전 9:30, 391부예배: 오전 11:30, 392부예배: 오전 1:30, 393부예배: 오전 7:30, 394부예배: 오전 9:30, 395부예배: 오전 11:30, 396부예배: 오전 1:30, 397부예배: 오전 7:30, 398부예배: 오전 9:30, 399부예배: 오전 11:30, 400부예배: 오전 1:30, 401부예배: 오전 7:30, 402부예배: 오전 9:30, 403부예배: 오전 11:30, 404부예배: 오전 1:30, 405부예배: 오전 7:30, 406부예배: 오전 9:30, 407부예배: 오전 11:30, 408부예배: 오전 1:30, 409부예배: 오전 7:30, 410부예배: 오전 9:30, 411부예배: 오전 11:30, 412부예배: 오전 1:30, 413부예배: 오전 7:30, 414부예배: 오전 9:30, 415부예배: 오전 11:30, 416부예배: 오전 1:30, 417부예배: 오전 7:30, 418부예배: 오전 9:30, 419부예배: 오전 11:30, 420부예배: 오전 1:30, 421부예배: 오전 7:30, 422부예배: 오전 9:30, 423부예배: 오전 11:30, 424부예배: 오전 1:30, 425부예배: 오전 7:30, 426부예배: 오전 9:30, 427부예배: 오전 11:30, 428부예배: 오전 1:30, 429부예배: 오전 7:30, 430부예배: 오전 9:30, 431부예배: 오전 11:30, 432부예배: 오전 1:30, 433부예배: 오전 7:30, 434부예배: 오전 9:30, 435부예배: 오전 11:30, 436부예배: 오전 1:30, 437부예배: 오전 7:30, 438부예배: 오전 9:30, 439부예배: 오전 11:30, 440부예배: 오전 1:30, 441부예배: 오전 7:30, 442부예배: 오전 9:30, 443부예배: 오전 11:30, 444부예배: 오전 1:30, 445부예배: 오전 7:30, 446부예배: 오전 9:30, 447부예배: 오전 11:30, 448부예배: 오전 1:30, 449부예배: 오전 7:30, 450부예배: 오전 9:30, 451부예배: 오전 11:30, 452부예배: 오전 1:30, 453부예배: 오전 7:30, 454부예배: 오전 9:30, 455부예배: 오전 11:30, 456부예배: 오전 1:30, 457부예배: 오전 7:30, 458부예배: 오전 9:30, 459부예배: 오전 11:30, 460부예배: 오전 1:30, 461부예배: 오전 7:30, 462부예배: 오전 9:30, 463부예배: 오전 11:30, 464부예배: 오전 1:30, 465부예배: 오전 7:30, 466부예배: 오전 9:30, 467부예배: 오전 11:30, 468부예배: 오전 1:30, 469부예배: 오전 7:30, 470부예배: 오전 9:30, 471부예배: 오전 11:30, 472부예배: 오전 1:30, 473부예배: 오전 7:30, 474부예배: 오전 9:30, 475부예배: 오전 11:30, 476부예배: 오전 1:30, 477부예배: 오전 7:30, 478부예배: 오전 9:30, 479부예배: 오전 11:30, 480부예배: 오전 1:30, 481부예배: 오전 7:30, 482부예배: 오전 9:30, 483부예배: 오전 11:30, 484부예배: 오전 1:30, 485부예배: 오전 7:30, 486부예배: 오전 9:30, 487부예배: 오전 11:30, 488부예배: 오전 1:30, 489부예배: 오전 7:30, 490부예배: 오전 9:30, 491부예배: 오전 11:30, 492부예배: 오전 1:30, 493부예배: 오전 7:30, 494부예배: 오전 9:30, 495부예배: 오전 11:30, 496부예배: 오전 1:30, 497부예배: 오전 7:30, 498부예배: 오전 9:30, 499부예배: 오전 11:30, 500부예배: 오전 1:30, 501부예배: 오전 7:30, 502부예배: 오전 9:30, 503부예배: 오전 11:30, 504부예배: 오전 1:30, 505부예배: 오전 7:30, 506부예배: 오전 9:30, 507부예배: 오전 11:30, 508부예배: 오전 1:30, 509부예	
---	--	---	--

“대한민국 정의 죽인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30개 대 기독교 대학생 300여명 시국선언 기자회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독교 대학생들도 이에 합류했다.

경기도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총신대 등 30개 대학 기독교 학생 300여명은 30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우롱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선언문에 “양심이 썩어버린 집단으로 인해 이 나라의 교육계와 법조계가 세계적인 웃

음거리가 되어버렸다”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 또한 깊은 수렁 속으로 그 차귀를 감춰 버렸다”고 밝혔다.

선언서는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이 나라의 부패 교육감과 부정부패에 대해 청년들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면서 “당장 자신들의 죄과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서울 교육계 수장직과 판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이어 “살아있는 청년들의 양심을 걸고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그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항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학생들은 이날 출근하던 곽 교육감을 향해 “학생인권조례를 대부분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포했다” “곽 교육감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서를 발표하면서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 기독교학생연합 강철민(27·분당구미교회) 대표는 “체벌금지, 집회자유 보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또 “곽 교육감이 위조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직에 복귀해 반인권적이고 망국적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강행하려는 행보는 이제 기성세대 뿐 아니라 진보적인 대학생들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독교학생은 앞으로 곽 교육감과 곽 교육감을 풀어준 김형두 판사 사퇴촉구 서명운동 등을 각 대학별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독교사회책임, 밝은인터넷,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등 교계 및 231개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도 이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또 오후에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김 판사 규탄집회를 가졌다.

총선·대선 후보 ‘기독교 공약 100선’으로 검증

미래목회포럼, 각계인사 참여 기획단 2월 구성

목회자 연합체인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최근 임원회를 갖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공약 100선(遷)’을 선정하기로 했다. 25일 밝혔다.

‘기독교 공약 100선’ 선정에는 최석원(오산평화교회) 목사와 주대준

(카이스트) 박명수(서울신학대) 양혁승(연세대) 김승욱(중앙대) 교수, 양인평(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병철(고려대) 총장 등 정·재계 및 교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다음 달 중 ‘기독교 공약 정책 기획단’을 구성, 관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총선과 대선 후보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포럼 측은 밝힌 기독교 공약은 동성애와 사형제, 안락사, 학생인권조례, 수구주제, 안티 기독교, 북한 주민의 인권, 종교편향, 역사교과서 기독교 관련 내용 개정, 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종교문화 지원 예산, 종교인 과제, 낙태, 탈북자, 이산가족, 공교육 회복, 종교단체의 교육·복지·환경 문제 등이다.

정성진 대표는 “총선과 대선 후보에게 100가지의 기독교 공약을 제

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기독교 정책을 펼칠 것인지 물을 계획”이라며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초를 제공하는 기독교 정책 수립은 물론,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 기독교계는 후보들의 공약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기도해준 역할에 그쳤다”며 “이젠 들러리만 설 수 없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후보와 당에게 표를 던지고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교회와 나라위한 기도대성회

목회자와 부흥사 1만여 명 참석

[미션라이프] “목사도 집에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돼 불을 꺼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도 소방대원이 되어 합니다. 4월 총선에서 확고한 기독교 정체성을 지닌 국회의원을 반드시 진출시키십시오.” 나라와교회를바라세우기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부흥선교단체총연합, 새기독교지도자협

의회는 27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대규모 기도대성회를 개최하고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는 목회자와 부흥사 1만여명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국가정체성 회복을 놓고 간구했다.

기도대성회에는 이만신(중앙성결교회 원로) 오관석(중앙침례교회 원로) 피종진(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서기행(대성교회 원로) 최병두(삼

신교회 원로) 나경일(주안장로교회 원로) 목사 등 각 교단을 대표하는 원로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종진(서울 은석교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오관석 목사는 “한국교회는 담대한 자세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포용하며, 과거의 잘못은 묻고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밟아야 한다”면서 “흑암의 권세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이사가 60장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 에스겔의 기도의 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올해 한국사회에 희망과 영통을 제시하기 위해서 1200만 기독교인, 5만 교회, 10만 교역자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부르짖자”고 말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체적 위기에 놓였고 한국교회엔 안티 기독교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고 독려했다.

‘신천지’ 공격적 포교, 특별주의 요청

3년새 47% 증가 8만5513명, 올 목표 15만3702명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신도수가 최근 3년간 47%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특히 신천지는 올해 포교 목표를 지난해 신도수의 갑절수준으로 잡고 다양한 위상 단체와 포교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기준으로 신천지 신도 수가 8만551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09년 5만8055명이던 신천지 신도 수는 2010년 7만122명으로 20% 증가했

고, 2011년에 전년 대비 17% 늘었다. 신천지는 올해 목표 신도수를 15만3702명으로 잡고 있다. 한 해 동안 6만8000명 이상 더 포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 교육강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탈퇴한 지명환(33)씨는 “신천지가 최근 공격적인 포교 전략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은밀하게 조작하고 숨기는 포교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신천지는 또 안티 기독교 세력과 전략적 제휴를 하며 포



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며 “14만 4000명을 다 채워야 눈물도 아플 정도로 죽음을 다 채운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 총회에서 고위 교육 간부로 지내다 2007년 탈퇴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를 맡고 있는 신현욱 씨는 “이만희 총회장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을 거짓과 헛된 속임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이용해 종교사기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사이비 선배 교주들로부터 배운 교리를 짜깁기해 만든 14만4000명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은 이혼, 학업중단, 가출, 직장사직 등을 조려내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차기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단독입후보

한기총-비대위 이견 팽팽... 정상화 산넘어 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홍재철(부천경서교회)목사 단독 입후보로 치러지게 됐다.

한기총은 30일 오후5시 제18대 대표회장 추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추천으로 입후보한 홍재철 목사 외에 추가 입후보한 인사가 없다고 밝혔다.

홍 목사의 단독 입후보는 예상 통합과 대신, 백석, 기독교대한성령교회 등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21개 교단, 단체들이 차기 대표회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차기 대표회장 후보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교단, 단체들은 한기총 현 지도부가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기와 회기를 차기 대표회장 선출 때까지 연장에 놓았지만 정관 규정상 총회 속회가 위법 가능성이 있는 데다 2월 14일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기총 정상화 행보를 걷는다는 복안이다. 박종연 대변인은 “7·7 특별 총회의 개혁 정신에 따라 차기 대표회장의 후보는 예상 통합과 합동을 제외한 중소형 교단인 (나)군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들은 길 대표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명예회장만이 임원으로 남기 때문에 명예회장과 각 교단 총회장을 초청해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길 대표회장 임기 이후에는 사실상 공백기가 예상됨에 따라 법원에 2월 14일 정기총회 속회 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임시의정사 임을 요청해 적법한 절차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기총 지도부는 지난 19일 정기총회에서 회기와 회무 연장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독 입후보한 홍 목사도 예상 통합의 정상적인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목사는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선의의 경쟁과 공정한 투표를 통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당선되고 싶다”며 한기총이 속히 정상화되길 기원했다. 홍 목사는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당선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했다.

길 대표회장은 “한기총 지도부의 이번 속회 결정은 법조인 10여명의 자문을 거쳤으며 모두 적법한 것”이라며 “대의원들은 새 대표회장 선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2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원동 왕성교회(길자연 목사)에서 대의원의 투표로 결정된다.

성시화운동본부 ‘전국 시·군 사회현황’ 발간

창립 40돌기념 연령대별 종교인구 등 담아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 김인중·전용태)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와 각 시군의 사회지표를 담은 ‘전국 시·군 사회현황(사진)’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시도군의 하위 평균 출생률, 사망, 혼인, 이혼, 교통·범죄·화재·의료사고 발생, 자살률, 생활폐기물, 전력사용량 등 한 도시의 건강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 자료가 담겨 있다. 특히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에서 조사한 연령대별 종교인구를 수록, 전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운동본부 총재 김인중(안산동산교회)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보기도운동, 전도운동,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운동”이라며 “발간한 책자의 통계를 참조해 각 시군마다 1년에서 3년, 혹은 5년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인 성시화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동총재 전용태(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장로는 “1972년 7월, 춘천에서 고 김준근(한국대학생선교회 설립자) 목사의 주도로 개최한 ‘춘천 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통해 이 운동이 시작됐다”며 “국내 성시화운동이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보다 구체적인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책자에 수록된 범죄발생, 이혼, 교통사고 등의 통계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면 한다”며 “한국교회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해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운동을 할 것과 10대, 20대 전도 전략을 세울 것을 한국교회에 당부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갑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기도회: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월-토) Tel: (708)373-7979, Fax: (708)967-8119 6534 N. Desert Ave., Las Vegas, NV 89148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주일 8:30 수일학교 예배: 오후 11:30 Tel: (704)841-6221, Fax: (704)841-1926 2619 McKee Rd., Chandler, NC 2872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목회 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9-8825, Fax: (303)429-8827 7786 Ripley St., Arvada, CO 80009	풍고배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기도회: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810)329-6221, Fax: (810)329-6221 3290 Albion St., Levittown, PA 190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미국) 수요일 기도회: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761)845-8179, Fax: (761)845-8046 1600 Woodrose Rd., Levittown, PA 19047	맨얼 교회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45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8:00 목회 기도회: 주일 8:00(월-토) Tel: (410)481-9726, Fax: (410)481-8273 3706 St. Johns Lane, Elkton, MD 219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8:00 주일 4부 예배: 오전 8:00 목회 기도회: 주일 1: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781)542-4878, Fax: (781)542-4427 2 Main St., Hingham, MA 01946
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30 Tel: (410)327-8443, Fax: (410)327-8443 11005 Reservoir Blvd., Lutherville, MD 21113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종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Tel: (206)455-0191, Fax: (206)455-0191 5007 Pacific Ave., Seattle, WA 98122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 예배: 오전 7: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Tel: (206)527-0261, Fax: (206)524-1747 4640 46th St., Seattle, WA 98122	입산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00 수요일 기도회: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810)329-6221, Fax: (810)329-6221 650 Ripley St., Levittown, PA 19046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계범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307)348-6446, Fax: (307)348-3132 2220 Woodrose Rd., Levittown, PA 19046	엘파소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7: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214)975-7345, Fax: (214)975-4343 3416 Alford Ave., Ft. Worth, TX 761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215)942-0200, Fax: (215)942-9077 708 Wilbur St., Homestead, PA 15126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경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254)824-6705, Fax: (254)824-6827 408 E. 9th St., Dallas, TX 75247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현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한국)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703)463-4427, Fax: (703)463-4448 4210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7	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804)292-7903, Fax: (804)292-7914 10201 Ambler Rd., Richmond, VA 2322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2:0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410)329-6221, Fax: (410)329-6221 3294 Corporate Court, Levittown, PA 19046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252)335-1989, Fax: (252)335-1989 7461 E. Verle St., Thomas, NC 28469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Tel: (253)333-8207, Fax: (253)333-8224 6702 E. 3rd St., Thomas, NC 2846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9: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253)239-8975, Fax: (253)239-8975 8424 E. Yukon Ave., Tacoma, WA 98444
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1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목회 기도회: 주일 10:30(월-토) Tel: (408)725-0191, Fax: (408)725-0191 1150 E. Debon Rd., Chandler, AZ 85286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김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808)847-6221, Fax: (808)847-6221 1535-A Pele Rd., Honolulu, HI 96816	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308)739-9011, Fax: (308)739-9011 1535-A Pele Rd.,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808)739-9011, Fax: (808)739-9011 1535-A Pele Rd.,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 예배: 오전 11:0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808)739-9011, Fax: (808)739-9011 1535-A Pele Rd., Honolulu,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목회 기도회: 주일 10:30 Tel: (808)847-6221, Fax: (808)847-6221 22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케냐

샬 롬(Shalom!) 2012년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도 기도와 함께 사랑의 후원으로 함께 하여 주신 교회와 선교회원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 하옵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는 건강한 가운데 주어진 사역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의 나타나며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전도 부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역과 개발사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교회 2곳, 우물개발 4곳, 학교 2곳, 의료원 1곳들이 진행되어 완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쳐 가뭄으로 식량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식량지원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식량지원 사역도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총 5곳의 우물개발이 진행되어 3곳이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2곳은 금년 2-3월경에 완공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북을개발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교회와 후원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노니교회 세례식
지난 11월 27일 나록 오시노니교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 1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 다. 이제 시작한 이들의 믿음의 행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카지아도교회 건축 완공
카지아도교회가 이제 곧 완공되어 봉헌될 예정입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2년이 넘는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

선교지 편지

저희들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올로로필교회 헌당식 연기
지난해 11월 26일 예정되었던 올로로필교회 헌당식을 갖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소우가질 계절인 관계로 헌당식 일주일 전부터 폭우가 내려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헌당식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는 6월이나 7월 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우물개발사역
지난해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총 5곳의 우물개발이 진행되어 3곳이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2곳은 금년 2-3월경에 완공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북을개발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교회와 후원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노니교회 세례식
지난 11월 27일 나록 오시노니교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 1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 다. 이제 시작한 이들의 믿음의 행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카지아도교회 건축 완공
카지아도교회가 이제 곧 완공되어 봉헌될 예정입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2년이 넘는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

지만 카지아도 맛사이 지역의 중 심교회로 자리를 잡고 지역 복음 화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 히 이 교회 담임목회자로 그동안 나록 신학교에서 공부한 데이빗 전도사가 금년에 신학교를 졸업할 하게 되어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올로로필 초등학교 건축 진행
그동안 재정적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던 올로로필 초등학교 건축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건물이 완공되면 그동안 20Km 이상을 걸어 다녔던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CE 임현수 회장님과 김 영 증 경회장님께서 마음고생하시며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에 다시 진행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요야야 부족 식량지원사역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부족 가운데 저희들의 미전도 부족 사역 지 중의 하나인 문요야야 부족 사 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자 식량지원 사역을 지난해 12월 7일 행하였습니다. 약 300가정에 게 서바이벌 키트(구호물품)를 전 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사역하는 강인중, 전선환 선교사 드림
이메일:missionkenya@gmail.com

탈진과 스트레스 (3)

- 선교사를 대상으로

황희숙 박사

(글로벌멤버케어센터 대표)



스트레스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과고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질병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질병이다.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멤버케어를 위해 선교사들을 상담하게 될 때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탈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역해 온 선교사들이나, 선교활동이 매우 제한되거나, 엄격히 금지된 선교지에서 수년간 사역을 지속해 온 선교사일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여 탈진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접하게 된다.

이 되며 때로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생활에 활력을 주거나 생산성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스트레스 상황은 뇌를 자극하는데 뇌의 변연계(limbic system)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고 시상(thalamus)은 들어오는 메시지를 적절히 처리한다. 또 시상하부(hypothalamus)를 통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활성이 되어 스트레스 호르몬(노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신체에서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호흡이 증가 하고 맥박이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되며 근

계를 맺는 주된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언어 충격은 사람들을 약속한 가운데 몰아넣게 한다. 초기 적응 과정에서의 보일 수 있는 예민하고 경직된 반응에 대해서는 선교사 본인도 가족과 동료들도 수용 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일상생활과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아주 단순한 일조차도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종종 예기치 않은 잠재적인 충격적 사건들로 느끼는 위기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개인적인

새로운 환경에서의 문화충격은 큰 스트레스나 탈진 초래 잠재적 충격적 사건, 개인의 역사적 갈등, 인간관계 등

장기 선교사일 경우 사역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고 사역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을 상실했다거나, 선교 대상 자들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던 내재된 갈등들과 많은 스트레스들이 축적되어 온 결과 때문인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란 일종의 균형을 잃은 불안이다. 불안은 삶의 압박에서 유발된 자극으로서, 대부분 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감정인 것으로 밝혀졌다(브루스리 치필드, 164). 따라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탈진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육이 긴장되고 세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문화충격이란 어릴 때부터 배워 온 모든 문화적 틀과 지침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할 때 경험하는 방향 감각의 상실을 말한다. 삶을 영위하던 모든 기준들이 허물어질 때 혼동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는 더더구나 알 수가 없다. 문화충격은 새로운 문화권에 깊숙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장기 선교사들에게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될 때에 심각한 정서장애 및 신체장애를 호소하게 된다.

갈등, 즉 역사적 갈등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인간관계를 통한 스트레스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교사의 삶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맺어진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는 생겨나게 마련이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대체로 사역자들 간의 갈등, 현지인들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지는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다.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다 심각한 차이는 사람들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세계에 대한 사고방식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세상을 보고 있지만 각기 다른 문화적 안경을 끼고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는 직업적(Occupational), 조직적(Organizational)인 부분에서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사역을 유지할 자원들, 즉 재정, 주택, 목회적, 기술적 도움, 후원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서도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외에도 신체적 어려움이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에게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계속)

신앙상담

(5면에서 계속)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의료용 이라면 적그리스도의 표는 아님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시간이 남았으므로 너무 서둘러 결론내리지 말고 좀 더 돌아 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성령의 인침받아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귀가 자기 인을 칠 수 없다.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어 믿은 성도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천국갈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의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엡

1:13-14).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인을 치고 계시며 장차 14만 4천 즉 문자적 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총수가 될 때까지 인치고 계십니다. 마귀도 성령님을 흉내 내어 인을 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자에게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계 14:1절의 말씀처럼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성령님의 인침 받은 자들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

로 마귀는 성령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만 건드릴 수 있고 인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하시니라"(계 9:4).

4. 어쨌든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든 아니든 기본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베리칩 시술하는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헌법소원으로 계류 중에 있어 이것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고 2012년 중순에 최종판결이 나기에 이 법이 위헌판결이 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받으라고 하면 가능하면 받지 말고 시간을 끌면서 계 13장과 같은 상황이 오는지 조심스럽게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선교사의 스트레스 요인과 증상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외적 및 내적 자극으로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감정을 야기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스트레스 인자(stressor)가 모두 부정적인 생활사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이혼, 실직과 같은 부정적 요인 뿐만 아니라 결혼, 승진도 스트레스 요인

선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선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요인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먼저 문화적(Cultural)충격을 들 수 있다. 문화 충격은 언어, 문화, 관습, 기후, 환경 그리고 생활습관 등이 다른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충격을 말하며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새로운 문화권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불능이다. 이방인으로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31)327-6794, FAX: (031)327-6794 군포시 군포동 470-42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537-4818, FAX: (02)537-4818 서울시 중랑구 장유동 319-7 (319-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경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7:30 TEL: (02)312-0818, FAX: (02)312-0818 김포시 김포동 419-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537-4818, FAX: (02)537-4818 서울시 중랑구 장유동 319-7 (319-231)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31)327-6794, FAX: (031)327-6794 군포시 군포동 470-42	돈돈한교회 담임목사: 정창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오.예배: 오전 11:00, 오후 8:00 TEL: (031)327-6794, FAX: (031)327-6794 군포시 군포동 470-42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상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정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사여덴교회 담임목사: 소경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근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주일 3부예배: 오전 9: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인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정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인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7:30 새 계 기도: 오후 7:3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왕성교회 담임목사: 권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창도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창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 계 기도: 오후 8:00 TEL: (02)777-7777, FAX: (02)777-828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아는 게 힘!(2)

새라킴 사모
(Christian Coalition 설립자)

DOMA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들

우선 크게는 오바마 행정부 (Obama Administration)라고 할 수 있겠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뿐 아니라 아래 썼듯이 전 세계에 동성애자 우호론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24일 워싱턴 신문에서는 "미국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오바마)이 이미 헌법이 된 법안을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2월 23일에 법무장관인 에릭 홀더(Eric Holder)를 통해 언급하기를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포용할 수 없는 DOMA 헌법 3항은 헌법으로서의 해당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오바마는 올해 6월 29일에는 "LGBT PRIDE MONTH"라고 해서 "동성애를 응원/지지 하는 달"을 백악관에서 가지기까지 했다. 지난 12월 20일에는 오바마 행정권과 힐러리 클린턴이 함께 동성애자들에게 동등한 결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발표하며 현재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도 속히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것을 촉구했다. 힐러리는 Human Rights와 Civil Rights 라는 이름아래 DOMA 조항 3항은 헌법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여기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은 현재 미국이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경제문제와 직업을 더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미 많은 법정 과정을 통과하여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에 의하여 헌법까지 된 DOMA를 REPEAL(반대운동)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잘못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DOMA를 위해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3월 4일 오하이오 공화당의 존 보헤너(John Boehner)는 DOMA와 같은 헌법에 대한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헌법은 나라의 법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난과 직업난 해소를 위해 뛰어줄 때이지 동성애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법안인 RFMA에 대통령이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지난 7월 13일에는 존 보헤너가 DOMA를 보호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들여 법률사무소를 고용하겠다고 한 보도내용에 반대파인 Citizens for Responsibility & Ethics in Washington: CREW가 공식적으로 항의 편지를 썼다가 이기지 못하고 후퇴했다. John Boehner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참고로, 현재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돼 결혼 라이선스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주(State)들은 다음과 같다.

Massachusetts(2004), Connecticut(2008), Iowa(2009), Vermont(2009), District of Columbia(2010), New Hampshire(2010), California ** (Prop8때문에 정지/Pending 중)

긴급: 아래의 회사들이 11월에 정부에 DOMA를 없애라는 편지를 썼다. LGBT(동성애/성전환자)들은 이 회사들에서만 구매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DOMA를 지원 하는 회사, 호텔 등에는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는 DOMA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ABT Associates *Aetna, Inc. Akamai Technologies, Inc. Alere Inc.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tion Biogen Idec, Inc. 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 Inc. Boston Community Capital, Inc. Boston Medical Center Corp. Bright Horizons Children's Centers LLC Calvert Investments, Inc. *CBS Corporation The Chubb Corporation Communispace Corp. Constellation Energy Group, Inc. Diageo North America, Inc. Eastern Bank Corp. Exelon Corp. Fit Corp Healthcare Centers, Inc. Gammagarden, LLC *Google, Inc.	Integrated Archive Systems, Inc. Kimpton Hotel & Restaurant Group, LLC Levi Strauss & Co. Loring, Wolcott & Coolidge Trust, LLC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 Massachusetts Envelope Company, Inc. Massachusetts Financial Services Company *Microsoft Corp. National Grid USA, Inc.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 *New Balance Athletic Shoe, Inc. New England Cryogenic Center, Inc. *NIKE, Inc. The Ogilvy Group, Inc. Oryx Pharmaceuticals, Inc. Partners HealthCare System, Inc. Reproductive Science Center of New England	Skyworks Solutions, Inc. *Starbucks Corp.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 Stonyfield Farm, Inc. Sun Life Financial(U.S.) Services Co., Inc. *Time Warner Cable, Inc. Trillium Asset Management Corp. W/S Development Associates LLC *Xerox Corp. Zipcar, Inc. Law and professional firms: Burns & Levinson LLP Edwards Wildman Palmer LLP Foley Hoag LLP Goodwin Procter LLP Goulston & Storrs, P.C. McCarter & English LLP Nixon Peabody LLP Parthenon Group LLC Rolfs & Gray LLP Salera Consulting Seyfarth Shaw LLP
---	--	---

DOMA[정상적인 결혼보호법]에 적극 반대하는 회사들:
 참고: DOMA에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인 "REPEAL" 또는 "SUPPORT RFMA"들을 내놓은 정치인들: Governors Deval Patrick of Massachusetts, Andrew Cuomo of New York, Jerry Brown of California,
 참고: DOMA 헌법을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편지를 쓴 70개의 Attorney Office 및 회사들. 알파벳 순. 잘 알려진 것은 [*]으로 처리함, 또한 같은 회사지만 입장은 도시마다 다를 수 있음.

들이다. DOMA를 반대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현명한 V.T.T.를 바란다.
 반대파가 추구하고 있는 법안인 RFMA란?

RFMA(Respect for Marriage Act)라는 법안(H.R. 1116)은 2009년 9월15일에 U.S. Representatives인 Jerrold Nadler에 의하여 법정에 올려졌고, 다시 2011년 3월16일에 Jerrold Nadler와 California 의 상원인(Senate) Dianne Feinstein에 의하여 법원에 상정됐다.

이들이 DOMA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조항 3항에 있는 "배우자"(Spouse)와 "결혼"에 대한 "정의"(definition)때문이다. DOMA에 의한 "배우자"는 "반대성"(opposite sex)을 가진 자여야 하며 "결혼"에 대한 정의는 오직 "남녀간의" 것으로 헌법에 정했기 때문에 RFMA는 이런 남녀 배우자만을 정통결혼이라고 주장하는 DOMA헌법을 밀어내고 누구나 배우자(동성포함)가 될 수 있다는 RFMA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RFMA는 여섯 단계의 법정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에서 2번째 단계에 와있다. 이 법안(Bill, H.R. 1116)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135명이 되고, 그들은 모두 민주당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19일 자신이 RFMA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미 헌법이 된 법안을 위헌이라고 하여 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 모든 어두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계속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위 내용의 자료 및 자세한 설명과 더 많은 뉴스들은 tvnext.org로 가시면 볼 수 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교회)

월 열매맺는 씨앗 (마13:24-31)

24절부터 주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3:6)라고 한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심기 주님의 좋은 씨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사5:2)라고 한 것처럼 그

리스도 안에서 발아한 성도라는 씨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을 성도들은 지닌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 씨앗인 셈입니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빌1:11).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진 성도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 성도와 교회의 성장 (마13:32-43)

32절은 작은 겨자씨가 성장해 큰 나무가 돼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성장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씨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면 큰 것은 약 3미터나 되고 온갖 새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것이 현재 전세계 기독교인의 수는 수억 명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살

아 움직이는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비정상입니다. 무언가 그릇된 신앙의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병명을 찾아내시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더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 보화를 발견한 농부 (마13:44-46)

44절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항아리 같은 것에 집안의 귀중한 보물들을 넣고 자기 땅에 숨겨놓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란으로 온 가족이 몰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땅 주인도 바뀌면 그 보물은 그저 땅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소작농민이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전채산을 팔아 그 밭을 사 보화까지 차지합니다. 여기서 조짐은 농부가 보화를 발

견했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다른 사람들도 경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농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숨겨진 천국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4:6).

목 그물 비유 (마13:47-52)

47-50절은 소위 '그물 비유'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천국의 원리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다나 강에 아주 넓은 그물을 설치한 후 배가 그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목적인 물고기 외에 다른 잡고기도 걸려들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우선 모으시는 섭리를 펴십니다(마22:9). 천국의 현관은 이 그물처럼 아주 넓으나 그 문은 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

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마7:14)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교회당 건물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때에 주께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마7:23)고 선고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무사 안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빌2:12) 돼야겠습니다.

금 주님의 권위의 말씀 (마13:53-58)

53, 54절은 주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제자들에게 모두 깨닫게 하신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계속된 사역에서 오는 피로도 풀고 가족들의 걱정도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할 겸해서 나사렛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며 메시야

되심에 대해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수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55절). 그들에게 주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시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 그분의 교훈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토 죄에서 돌이키라 (마14:1-12)

1절과 2절,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해 커다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인과 사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반드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떨면서도 회

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죄인도 회개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2:5).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향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신바람 목회의 부식돌!

교회력에 따라 만들어진 1년 52주 주일예배와 특별예배를 위한 설교와 예배 가이드 북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향안 선종목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향안 목사 저
● 판형 : 4x6판 / 80쪽
● 가격 :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니다.

김향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문헌의 대박!

Why Christmas?

● 왜? 크리스마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는가?
●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가?
●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2012 특목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향안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신바람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설교 46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예화 127편
● 판형 : 신국판 / 416쪽
● 정가 : 10,000원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카드 실제모습]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 교회주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기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송구예 대한 심판설교 제공
● 주문 수령만큼 '책갈피' 제공

은혜스러운 송구영신 영상비디오

● 참회, 감동, 소망 결단이 있는 영상비디오 & CD

한국교회정보센터 **뜯글로리아**

www.kcdc.net
824-3004, 5004

한국에서 만납시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강사



김웅도 목사
• 금란교회 동사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황익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송용걸 목사
• 신천교회
• 현지대회장



이영선 목사
• 불티모어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송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장영준 목사
• 본지 발행인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명		
소계		
신금	CK#	
진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 한국현지등록: 50불(숙박제외)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 (02)436-5770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 (Senior 1,160불)-아시아나항공
 LA 서울 왕복 항공료: 1,220불 (Senior 1,130불)-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뉴욕출발)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제6회 미주 웨슬리언 연합 찬양 축제

찬양을 통한 미주 웨슬리언들의 교류와 일치의 축제 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주 웨슬리언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6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제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웨슬리언들의 연합과 교류, 일치와 소통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이번 찬양제에 목회자와 모든 웨슬리언 성도들이 정성껏 참석하시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찬양제를 위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여 참가하시는 모든 참가교회 찬양대와 담임목사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시: 2012년 2월 12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월셔연합감리교회**
 711 S. Plymouth Bl., LA, CA 90005



미주 웨슬리언 연합회 회장 박재호 목사



제1회 웨슬리언 찬양제 (2005년 10월 23일 / 유니온교회)



제2회 웨슬리언찬양제 (2006년 10월 22일 / 유니온교회)



제3회 웨슬리언 찬양제 (2008년 5월 18일 / 월셔연합감리교회)



제4회 웨슬리언 찬양제 (2009년 11월 1일 / 나사렛 찬양 교회)



제5회 웨슬리언찬양제 (2010년 10월 17일 / 유니온 교회)

2012년 제6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제 참가교회 (성가대)



드림교회



이성현 담임목사



김무섭 지휘자



LA연합감리교회



김세한 담임목사



진정우 지휘자



시온교회



구진모 담임목사



이진남 지휘자



새별선교회합창단



이봉조 단장



이경원 지휘자



연합선교교회



이상복 담임목사



서건 지휘자



유니온교회



문병웅 담임목사



황성삼 지휘자



나사렛성결교회



김성대 담임목사



김혜숙지휘자



한빛성결교회



차명일 담임목사



이경원 지휘자



나성동산교회



한기형 담임목사



미주아성코랄



오성애 지휘자

- 미주 웨슬리언 연합회
- 회장: 박재호
- 이사: 이영기 (기성), 김건도 (기감), 안용식 (기성), 김성대 (나사렛), 이상복 (기성), 이성현 (연감), 송정명 (예성), 한기형 (기감), 오 그레이스 (기성), 박용덕 (예성)
- 사무총장: 조명환 (연감)
- 협동총무: 노정해 (나사렛), 조현영 (기감), 윤석길 (기성), 성성용 (예성)

특별초청찬양단



미주아성코랄



오성애 지휘자

주최: 미주 웨슬리언 연합회 (회장 박재호 목사) 주관: 크리스천 뉴스위크 (발행인 조명환 목사)